

Vol. 69

2024. 03+04
www.jares.go.kr

미래로 가는 전남
농업

무화과



無花果

무화과

우리나라 최대 무화과 주산지인
전라남도는 재배면적 735ha로, 전국 무화과
재배면적의 96.5%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022년 3월
‘특화작목 무화과 연구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무화과 농가와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지역특화작목에 고부가가치를 더하다

Cover Story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말, 지역특화작목인 무화과 잎을 이용하여 피부 미백,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 세럼과 크림을 개발했습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 연구개발을 통해 이룬 성과로, 부산물로 방치되었던 무화과 잎을 제품화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최대 무화과 주산지로, 대부분 단일 품종인 승정도우핀을 재배하고 있어 기능성 원료 소재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 생과의 저장력이 1.5일에 불과해 유통 기간이 짧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무화과 추출물을 활용한 향장품 소재화 외에도 희소 당인 알룰로스'를 활용한 잼, 시럽 등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Contents



농업 + 기술

지역특화작목에 고부가가치를 더하다

테마읽기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흑염소 산업화' 전국 최고 입증	13
테마칼럼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이렇게 육성하고 있다	14
테마인물	완도군 '섬바다식품' 김윤희 대표	18
테마zoom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22

도민 + 행복

명인을 만나다	제27호 고흥군 '여화원' 공슬기 명인	28
신바람, 청년농업	고흥군 '봉봉채소농장' 이창복 대표	32
시선집중, 여성농업	곡성군 '자매가' 최미라 대표	36
전남의 선도농가	영광군 '농업회사법인 주희영농(주)' 김대연 대표	40
우리 동네 농기센터	활력 넘치는 농촌 실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44



농촌 + 활력

전남농장, 여기 어때	함평군 '이리네농장'	50
귀농·귀촌 길잡이	귀농·귀촌해서 '함평'하자!	54
글로벌 팜	커지는 중국 간편식품 시장 속 인기상품 및 수요 트렌드	56
농UP 테크	간편하게 즐기는 분말·액상 차음료 신제품 개발	60
병해충 정보	마늘 양파 병해충 방제	62

전남 + 가치

즐거운 도시농업	눈·코·입이 즐거운 '식용 꽃', 특성과 활용 방법	66
농업재정	전라남도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8
농업인 안전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따라 하기 쉬운 농업인 허리 운동 ①	70 73
농업인 교육	5월·6월 교육 일정	74
독자의 소리		78



2024 03+04 vol.69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은 2014년 창간된 농업전문 매거진입니다.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전남농촌교육농장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발행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발행일 2024년 4월 발행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박홍재
편집인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편집책임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편집기획 신길호 김대환 이수영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화 061-330-2597 팩스 061-335-4199
홈페이지 www.jares.go.kr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0-07 기획·제작 방형식디자인 02-2082-6388

전라남도-경상북도, 농업인 상호 교육 교류과정 협력 '맞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상호 우위에 있는 특화품목 중심의 농업인 교육 교류과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전남의 아열대 과수와 경북의 포도에 대한 교류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은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이 2,452 ha로, 전국 4,125 ha의 59%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이다. 농가 수는 4,160농가로 전국 7,338농가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만감류, 애플망고, 백향과, 바나나, 파인애플 등 아열대 과수 재배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품목 선정과 맞춤형 재배기술 교육, 생산기반 조성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문의 | 농업교육과 정광원 주무관(061-330-2724)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보성농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보성농업협동조합이 쌀 가공산업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쌀 가공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양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쌀 가공공장 활성화 및 가공제품 개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발굴'과 그 밖의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보성지역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유석 연구사
(061-330-251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업무협약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도내 농업인의 응급처치 교육 및 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농촌의 고령화, 이상기후에 따른 여름철 폭염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농업인의 농작업 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올해 도내 농업인과 청년 CEO, 여성·은퇴예정자·귀농인 등 96개 교육 과정에 2천 7백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 현장에서 각종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농업교육과 최성근 팀장(061-330-2721)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교통연수원과 업무협약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교통연수원과 도내 농업인의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군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농업인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강사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 관련 행사 협력과 농업분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이 고령 농업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전남지역의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농업교육과 정광원 주무관(061-330-2724)

㈜쿠키아와 가루쌀 가공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여수시 소재 ㈜쿠키아와 가루쌀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가루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 쌀 가공용 전용 품종으로 만든 가루쌀은 전분 내부 구조가 헐거워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뿜을 수 있어 가공비용이 저렴하고 전분 손상이 적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가루쌀 생산·가공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가공제품 기술 개발, '가루쌀 가공제품 사업화 및 유통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윤희 연구사(061-330-2512)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전남농업 혁신 도모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혁신적인 지도사업 전개로 전국 최고의 농업 실현을 위해 21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과 부서별 업무를 공유하고,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당면한 영농상황에 대한 소통 및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25년 국고 건의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의 | 농촌지원과 변규환 주무관(061-330-2752)

담양 ‘프리미엄 딸기’ 두바이로 첫 수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담양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광수에서 담양산 프리미엄 딸기(죽향, 메리퀸)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첫 수출하였다. 이번 수출은 담양에서 육성한 죽향, 메리퀸을 생산하는 봉산딸기공선화와 수출전문업체인 영농조합법인 광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담양군이 협업으로 발굴한 두바이 대형식품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선적된 딸기는 200kg으로 양은 적지만 두바이로 첫 수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과 홍보를 통해 대형매장에서 판매된다.

문의 | 자원경영과 홍우진 연구사(061-330-2593)



완도 노지감귤 ‘다공질필름 토양피복’ 효과 입증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노지감귤 과수원 표면에 다공질필름을 피복한 결과, 품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양피복 실험은 제주지역의 일부 농가에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로, 수확 전 토양 내 수분을 낮추고 광(光) 환경 개선을 통해 전남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다공질필름(타이백)은 잡초 발생방지, 빗물 차단, 토양수분 유지, 빛 반사 등의 효과로 당도를 높이고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과수원 착색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의 | 과수연구소 김대선 연구사(061-880-8025)

마늘·양파 생육재생기 포장 관리 강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마늘·양파 생육재생기가 시작됨에 따라 재배포장 관리와 병해충 방제, 적기·적량 웃거름 주기를 당부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서릿발 피해는 정식 시기가 늦어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하거나 습한 토양에서 주로 발생한다. 예방은 솟구쳐 올라온 마늘·양파는 땅에 잘 눌러주고, 뿌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흙을 덮어줘야 한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 심는 것보다 2월 중순경에 월동 묘를 보식해야 생존율이 높고 고품질의 마늘·양파를 생산할 수 있다.

문의 | 기술보급과 유정선 지도사(061-330-2784)



단동하우스 전용 스마트팜 보급 확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농가 실정에 맞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고흥·보성 등 18개 시군, 20개소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보급한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은 일반 단동하우스에 자동 환경제어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제어가 가능하게 개발된 것으로, 기존 스마트팜 대비 설치비를 최대 56%까지 절감할 수 있다. 보급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기술보급과 김덕룡 주무관(061-330-2782)



부자농부 양성을 위한 경영개선 자금 지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돈 버는 부자농부 양성을 위해 '2024 농가 경영개선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수한 농업경쟁력을 갖춘 부자농부 양성을 위하여 25 농가에 사업비 7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농가 경영개선사업은 3개 사업으로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컨설팅 확산 지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부자농부 양성은 귀농인과 청년 창업농의 유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의 | 자원경영과 김민현 연구사(061-330-2583)



2024년 농업분야 과학영농서비스 중점 추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농업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59개 사업, 54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영농서비스 확대에 179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친환경 GAP 인증 지원 등 국가 정책사업 성과 달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혼신을 다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과학영농서비스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신기술보급 현장 실용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기술보급과 박상임 지도사(061-330-2773)

농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무료 실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작물 재배지 토양검정과 비료사용 처방 발급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토양검정은 땅의 영양상태를 검사해 작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는 산도(pH)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석회 소요량, 전기전도도(EC) 등 7가지 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작목에 적합한 비료 사용량을 추천해 준다. 토양검정은 경작지가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방문하면 토양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시료 채취용 봉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 기술보급과 박정선 지도사(061-330-2772)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서비스 확대 운영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의 기상정보 상세화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전라남도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 서비스'는 농장 상황에 맞게 30m×30m 단위로 농장마다 다른 지형, 작목 등을 고려한 기상정보를 예측하여 알림톡(카카오톡), SMS, 웹 포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스마트폰(www.jares.go.kr/agmet/mobile/login.do)으로 직접하거나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기술보급과 김선표 팀장(061-330-2771)



홍차 이용 HMR(가정간편식) 떡볶이 출시

전남산 홍차를 이용하여 만든 HMR(가정간편식) '홍차 떡볶이'가 도내 업체를 통해 선보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차(茶)를 이용한 디저트 상품 개발에 나서, 속성 산화 기술로 만든 100% 국산 홍차를 이용하여 떡볶이 떡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홍차 떡볶이'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제조공정을 개선해 색도를 향상시켰으며, 홍차를 고함량(5%)으로 넣어 떡 제품의 특성상 저장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에 의한 변질 문제 등 저장성 향상과 건강 기호성을 적용한 밀키트 제품이다.

문의 | 차산업연구소 정미진 연구사(061-850-2705)



문의 | 축산연구소 최영선 팀장(061-286-5870)

양파로 어린이도 먹는 세대별 맞춤형 가공품 개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의 대표 지역특화작목인 양파를 이용해 어린이도 먹을 수 있는 세대별 맞춤형 가공제품 '구미젤리'와 '양파 캐러멜소스' 등을 개발하였다. '구미젤리'는 5월 하순의 양파 전초(잎을 포함한 전체 양파 식물체)를 이용한 추출농축액을 활용했으며, 한 봉에 퀴세틴이 약 318μg 정도 함유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한 최신 가공제품 소비추세 조사를 통하여 20~40대가 선호하는 양파가루와 소스류, 50~60대가 선호하는 샐러드드레싱을 개발해 선보였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선경 연구사(061-330-2513)



한국농촌지도자전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성황'

한국농촌지도자전남도연합회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회원 및 임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24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제23대 진도 주만중 회장에 이어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나주 출신 최원섭 회장은 취임사에서 "농업·농촌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농촌청소년 및 영농 후계세대 육성 지도, 우애·봉사·창조의 3대 지표를 통한 농촌지도자 위상 제고와 기반 구축에 한몫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의 | 농촌지원과 강상구 주무관(061-330-2762)



단호박 유기재배 매뉴얼 발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지역특화작목인 단호박을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단호박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최근 단호박의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유기재배 기술과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단호박 유기재배에 적합한 토양관리와 작물 양분관리, 병해충 방제요령 등이 수록된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하였다. 또한 우수농가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했으며,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과 광경진 연구사(061-330-2505)



김현지 연구사, 친환경농업 유공 장관상 수상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현지 연구사가 제9회 '흙의 날'을 맞아 삶의 터전이자 농업의 기반인 흙을 소중하게 가꾸어 보존하고,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현지 연구사는 18년 동안 전남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변동조사,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 왕우렁이 자원화기술 개발, 탄소저감형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김현지 연구사(061-330-2502)

농업에

기술을

더: 하 다



농업



기술

지역특화작목에 고부가가치를 더하다

테마읽기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흑염소 산업화' 전국 최고 입증	13
테마칼럼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이렇게 육성하고 있다	14
테마인물	완도군 '섬바다식품' 김윤희 대표	18
테마준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22

테마읽기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흑염소 산업화' 전국 최고 입증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흑염소 개량지원' 사업과 농촌진흥청 '지역 특화작목' 사업 수행 공모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지역특화 작목인 흑염소의 우량 계통 육성, 정밀 사양기술 개발, 소비자 선호 가공식품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흑염소를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021년 전국 최초로 '흑염소 산업화 연구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대형할인점에 전남산 흑염소 고기를 판매하였으며, 최근 뉴질랜드산 우량 씨염소 8두를 입식하는 등 육량형 흑염소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국 최대 흑염소 주산지인 전남의 흑염소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각오이다.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이렇게 육성하고 있다

글 | 전라남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조동호 총괄이사

지역특화작목을 왜 육성해야 하는가?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농가인구 고령화, 청년농가 감소, 도농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 수익성 악화로 인해 농촌 사회 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이 크게 낮아지면서 지방 소멸 위기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런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입지 조건에 적합한 작목을 도입하고 특화하여 농촌의 핵심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을 브랜드화하고, 시장경쟁력을 키워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활력을 끌어내야 한다.

대표작목	유자
집중육성작목	무화과
	차·커피
자체육성작목	양파(조생종)
	흑염소
	양봉
	고구마
	참깨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특화작목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작목으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작목을 말한다. 따라서 비용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어야 하며 지역 내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지역 내 기반이 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성을 바탕으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작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의 특화계수를 분석하여, 집중도가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작목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게 된다. 특화계수는 1 이상이면 특정 작목이 전국과 비교해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2보다 크면 특화지역의 핵심 작목, 1과 2 사이에 있으면 주산 작목이라고 한다.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선정과 육성계획은?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역별 지역특화작목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지역특화작목을 지정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주기 종합계획의 수립 의무를 명시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상위 종합계획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작목 시장경쟁력 강화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화작목은 그동안의 사업성과, 시장경쟁력, 산업발전 가능성, 지역 특화성, 연구기반 우수성 등을 종합하여 23개 작목을 선정하였고, 이를 **주력특화작목(8개)**과 **보완특화작목(15개)**으로 세분화하였다.주력 특화작목은 우수한 시장성과 미래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차·커피, 참깨, 양파, 유자, 무화과, 양봉, 고구마, 흑염소이다. 보완특화작목은 시장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고, 지자체의 기반 여건과 육성 의지가 높은 작목으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특수미, 동부, 마늘, 멜론, 수국, 딸기, 참다래, 석류, 아열대과수, 비파, 매실, 양잠, 목이버섯, 사료작물, 반려 동물을 선정하여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력특화작목 중 유자는 우수한 시장성과 미래 성장성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전라남도 대표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되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1차 종합계획 사업 기간인 2025년까지 대표 작목을 주축으로 집중지원을 펼쳐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기반시설 고도화, 품종육성, 재배기술, 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 및 수출 확대를 꾀하고, 지역 특산물로서 상품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정책개발, 사업관리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다음 몇 가지는 꼭 실천해 나가야 한다.

첫째, 생산비를 절감하여 안정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전라남도 대표 지역특화작목인 유자를 예로 들면, 매우 노동집약적인 생산구조가 문제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2022년산 유자 생산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생산비의 53% 이상을 노력비가 점유하고 있다. 경사지에 과원이 조성되어 있고 밀식하여 생력 농기계 투입이 어려워,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수확 작업, 전지 전정 작업 등을 기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건비는 지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 농가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기반환경과 재배법을 생력화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 밀식 과원은 간벌을 통해 농기계 투입이 가능하도록 기반환경을 정비하고, 농약, 비료 살포는 물론 수확 작업 등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농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등급화 표준화를 통해 품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차별화는 품질, 제품, 마케팅 등 유·무형의 요소를 활용하여 경쟁상품에 비해 가격, 인지도, 충성도 등의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당도, 색깔, 모양,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하거나 GAP, 무농약, 유기농 등 각종 인증 취득과 서비스 차별화, 빠른 배송, 원료 홍보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자가 왜 이 농산물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만들어가는 것이 차별화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 특정 시장이나 고객에게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시장을 넓혀 가는 것보다는 핵심고객 중심의 마케팅이 요구된다. SNS 활용인구의 증가와 비대면 결제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농산물도 소비시장이 세분화되고 있고 세포마켓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유통업자들이 농산물 유통의 주체가 되어 왔지만,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개별농가도 유통 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팔로워를 많이 보유한 인기 유튜버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이 역할을 점차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조직화를 통해 농가 간의 기술·정보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고, 시장의 공동 대응을 통하여 가격교섭력을 높이고 유통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가들의 경영기반이 영세하여 농업소득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차 농산물 생산을 바탕으로 2·3차 부문으로 융복합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상호 협력을 통해 농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의 지역특화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푸른 섬과 바다의 기운을 담은 건강한 유자를 만듭니다

완도군 '섬바다식품'
김윤희 대표

글사진 | 정환정 작가



재배농가가 많은 곳에서 생산하는 작물은 품질이 좋기 마련이다. 여러 농가가 다양한 농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웃보다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재배하는 곳에서 수확한 작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완도군 '섬바다식품'의 유자 가공제품처럼 말이다.



조금은 쉬워 보였던 일, 유자 농사

유자청, 유자원액, 유자파우치, 한라봉원액, 포도원액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섬바다식품'은 완도군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남해안 전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과일이 유자이기는 하지만, 완도에서의 유자는 낯설어 보이는 게 사실. 전복과 미역, 다시마 등 다양한 해산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완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자는 고흥의 대표 작물이기도 하다.

“완도 역시 고흥과 같은 시기에 대대적으로 유자나무가 식재된 지역이에요. 다만 고흥은 그 면적이 상당히 넓었던 덕분에 더 많은 유자를 생산할 수 있었던 반면, 완도는 어업이 발달하면서 규모가 점점 줄어들었지요. 아버지도 약 2만 평 가깝게 유자 농사를 지으셨지만, 지금은 포도와 한라봉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느라 유자 재배면적은 많이 축소되었답니다.”

김윤희 대표는 유자 농사를 짓는 집 막내딸로 태어났다. 성인이 된 후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완도로 돌아왔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던 중 결혼하여 아들 셋을 낳았다. 그동안 간간이 부모님의 농사를 돕던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유자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한 것은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무렵이었다고 한다.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집 아이들 돌보느라 정작 내 아이에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 가업에 동참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마침, 안면도에서 포도 재배기술사로 일하다가 아버지의 농원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오빠도 함께 농사짓기를 권하던 상황이었어요.”

교사 생활을 하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많이 봐왔던 점도 김 대표가 귀농을 결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청정한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완도에서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 1/3이 아토피 증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여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겁도 없이 농사에 뛰어들었다. 김 대표는 “그때만 해도 농사를 잘 몰랐으니 씩씩했다”라며 웃었다.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모든 것을 더 순수하게

김 대표의 아버지는 이미 무농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자 농사를 짓고 있었다. 가족 모두 약제에 상당히 민감한 체질이였기 때문에, 처음 유자를 심었을 때부터 농약 사용은 최소화해 왔다. 그래서 본격적인 유기농 인증을 받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유기농 유자라고 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자 품질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저희 유자의 향이 워낙 좋아서 고흥에서 수매를 해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울퉁불퉁 못생긴 외형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유기농이지만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을 감수해야만 했고요.” 유자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성스레 만들던,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사 갔던 유자청을 직접 만들기로 하였다. 2012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유기가공인증서를 받은 생산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유자청이 생산되었다. 쓴맛과 텁텁한 뒷맛을 남기는 과육 및 씨방 부위를 모두 제거하고, 깨끗하고 산뜻한 맛이 풍부한 껍질 부분만 사용한 유자청이었다.

“유자껍질의 당도를 측정한 적이 있는데, 최고 12브릭스가 나오더라고요. 최고급 감귤의 당도와 맞먹는 수준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 대표는 “유기농이지만, 꼼꼼하게 세척한 후 인근 할머니들의 매운 손끝으로 갈끔하게 과육을 발라낸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유자원액과 유자원액을 희석한 파우치형 제품 ‘유자생각’ 역시 동일한 수준의 정성과 꼼꼼함으로 만들었다. 또한, 큰오빠가 유기재배하고 있는 포도로 포도원액도 제조하였다. 하지만 제품이 좋다고 해서 판매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오래지 않아 절감하게 되었다. 김 대표는 부가가치를 높일 방법 외에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도 찾아야만 했다.

젊은 소비자에게 더 사랑받는 완도 유자

현재 ‘섬바다식품’의 유자제품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다만 김 대표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홍보와 판매를 대신해 줄 벤더(Vendor)에게 소비자와의 접촉을 맡겼어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저는 유자 농사와 제품생산, 포장 및 발송만 담당하는 시스템이지요. 초기에는 직접 판매도 해봤는데,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섬바다식품’에서 생산한 유자제품은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단순히 따뜻한 차로 소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샐러드드레싱이나 요즘 유행하는 하이볼에 첨가하는 등 그 활용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란다. 얼마 전부터는 청귤에 이어 청유자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개발되고 있어 유자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제 단순히 농사를 지어 작물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체험이나 가공 등으로 농업의 폭을 확장하면,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간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상시 근무 직원까지 채용한 김 대표. 그가 유자를 통해 만드는 미래가 얼마나 향기로울지 벌써부터 싱그러운 기대가 가득해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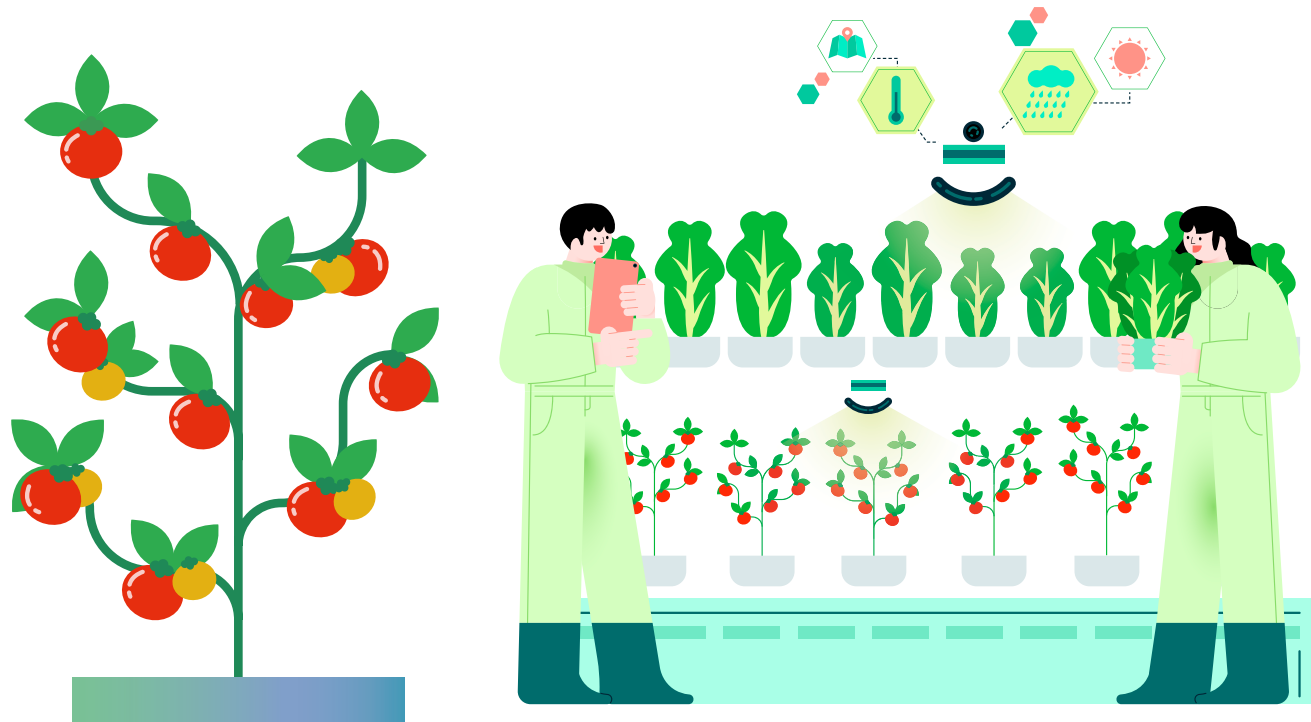
섬바다식품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628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글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박진영 지도관

지역에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지역 산업 발전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소규모사업을 통합 확대한 사업으로, 4개 유형에 개소당 2년 연속사업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개 유형은 ‘(작목도입) 신규작목 실증연구 및 현장 적용’, ‘(유통·가공) 지역협의체 육성 유통·가공 연계 소득화’, ‘(산업화) 주산시군 비교우위 특화작목 산업화’, ‘(디지털농업) 미래형 저탄소·디지털 농업기술 투입’ 등으로 구분되며, 1차년도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다음해 계속 지원 사업을 선정해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견인할 계획이다.



2024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계획

올해 사업은 2023년 8월 2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1년차(신규) 대상 시군으로 순천시 ‘고들빼기 기능성 효능 활용 가공유통 소득화 사업’ 등 3개소 1,500백만 원, 2년차(계속) 대상 시군으로 곡성군 ‘와사비 특화작목 육성기반 조성’ 등 10개소 3,500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의 지역 현안을 반영한 유형별 신기술 투입과 시군 농업기술센터-행정-농협-대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 활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시군	시군 사업명	작목	사업비(백만 원)		
				합계	군특 (전환)	시군비
1 년 차	계	3개 사업	3작목	1,500	750	750
	순천	고들빼기 기능성 효능 활용 가공유통 소득화 사업	고들빼기	500	250	250
	나주	명품 나주배 경쟁력 제고 사업	배	500	250	250
	신안	참깨 가공단지 구축 사업	참깨	500	250	250
2 년 차	계	10개 사업	10작목	3,500	1,750	1,750
	곡성	와사비 특화작목 육성기반 조성	와사비	480	240	240
	구례	소비트렌드 맞춤형 단감 생산단지 육성	단감	200	100	100
	보성	유망작목 아열대과수 단지 육성 시범	애플망고	408	204	204
	해남	쪽파 연중생산 시범단지 조성	쪽파	180	90	90
	장성	신소득 아열대작물 레몬 재배단지 육성	레몬	280	140	140
	영광	대파 연중 안정생산 유통기반 구축	대파	480	240	240
	고흥	키위 명품화 생산단지 육성	키위	400	200	200
	강진	최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단지 조성	딸기	400	200	200
	영암	고품질 황토멜론 생산기반 조성	멜론	380	190	190
	진도	고품질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육성 시범	아열대과수	292	146	146

2023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성과

2023년 주요 성과로는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사업 공모를 통해 10개 시군에 4,000백만 원을 투입하여 곡설 와사비, 구례 단감, 해남 쪽파, 장성 레몬, 영광 대파, 고흥 키위, 강진 딸기, 진도 아열대과수, 보성 애플망고, 영암 멜론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한 전략소득작목 육성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전보다 작목별 평균 수량이 14.7% 많아져 농가소득이 2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구례군의 '소비트렌드 맞춤형 단감 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단감 조생종 태추 재배단지 확대(23년 17.6ha → '24년 22.1ha)를 위해 지역 재배환경에 맞는 표준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적기수확, 미숙과 출하 방지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품질 규격화 출하량이 10~15%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강진군 '최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딸기 원묘보급 실증포를 조성하고 딸기 삼목 육묘장 등 전문육묘장을 조성하여 미스트 시설로 삼목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육묘 기술을 통해 노동력을 30%로 절감하고, 천정개폐 시설로 혹서기 하우스 내 온도를 낮춤으로써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딸기 묘 판매량을 기존 2만 묘에서 4만 묘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해남군 '쪽파 연중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간쪽파 가공 출하를 위한 쪽파 연중생산 기반 조성, 여름용 종구 증식포 1.0ha, 연중 출하를 위한 겨울철 재배용 시설하우스 0.7ha 조성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여름용 종구 6ha 증식으로 종구비 80%(종구비 37,500천 원/ha) 절감과 연중생산 기반 조성으로 4작기 재배 및 출하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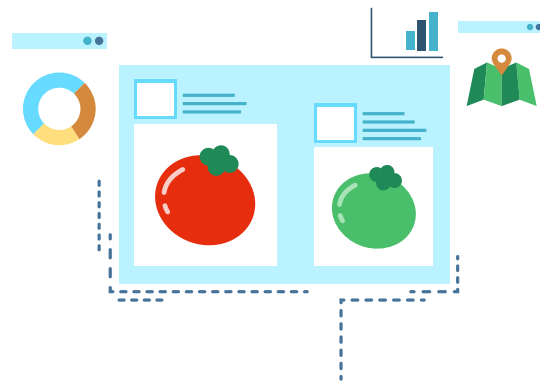
장성군 '신소득 아열대작물 레몬 재배단지 육성' 사업은 레몬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묘목 및 유인시설, 자동환경제어 스마트팜 설치, 친환경 레몬 재배기술 등을 지원 하였다. 특히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과 레몬 재배단지 조성으로 '아열대메카 장성' 지역브랜드 강화 및 체험관광, 축제 부스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다. 레몬 재배단지 3.2ha가 아열대작물실증센터 예정부지 인접지역으로, 레몬 재배단지 조성 및 친환경 재배를 통한 생산 규모화·품질 규격화로 수출 농업기반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선도농, 농산업체, 전문가 등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연구 개발된 최신 농업기술과 재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작물 진단 및 병해충 관리 등 현장자문으로 고품질 레몬 생산 및 농가 전문성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농협과 가공지원센터를 연계하여 레몬 품질관리, 친환경 생산지원, 홍보마케팅 운영을 추진하여 장성레몬 브랜드화 및 수출농업기반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구례 태추단감 홍보행사



강진 딸기 원묘보급 실증포



고흥군 '키위 명품화 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인공수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송풍 수분기를 도입하여 키위 인공수분 시 1,000㎡당 30분 소요로 관행 480분에 비해 인공수분 노력을 1/16 감소시켜 인건비를 95%로 절감하였으며, 유자축제(11.3~5.)에 키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고흥키위 인지도 향상 및 고품질 키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키위 3.9톤을 판매하였다.

보성군 '유망작목 아열대과수 단지 육성' 사업은 애플망고 단지를 2024년까지 1.1ha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보성군 애플망고 예상 생산량은 약 4톤으로 당도가 평균 14브릭스, 최고 20브릭스에 달한다. 또한 보성군 애플망고는 나무에서 완숙시켜 수확하기 때문에 덜 익은 과일을 수확하여 운송 중 후숙하는 수입 망고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나다. 앞으로 아열대 재배 농업인을 중심으로 보성애플망고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기술력 향상과 균일한 상품 출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남 쪽파 종구 증식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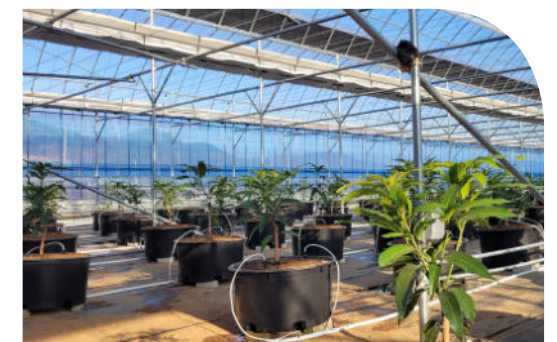


장성 레몬 맞춤형 현장건설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촌 고령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천, 농산물 과잉생산과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농가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소득작목 육성 사업의 장점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시군별 경쟁력 있는 대표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여 도내 시군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



고흥 키위 라이브커머스



보성 애플망고 묘목 식재

도민에

행복을



도민



행복

명인을 만나다	제27호 고흥군 '여회원' 공슬기 명인	28
신바람, 청년농업	고흥군 '봉봉채소농장' 이창복 대표	32
시선 집중, 여성농업	곡성군 '자매가' 최미라 대표	36
전남의 선도농가	영광군 '농업회사법인 주희영농(주)' 김대연 대표	40
우리 동네 농기센터	활력 넘치는 농촌 실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44

‘크랩 멘탈리티(Crab Mentality)’는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을 묘사한 이론으로, 양동이 안에 들어 있는 어떤 게가 밖으로 탈출하려고 할 때 다른 게들이 잡고 끌어내리는 행동 습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더:하다



이 이론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과 비슷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축하해 주고 응원하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면 모두 상생(相生)할 수 있는 행복한 농촌이 가능해집니다.

그림 같은 농장의 달콤한 무화과

고흥군 '여화원' 공슬기 명인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학 졸업 후 조선소에 근무하였다. 그곳에서 역시 부산 토박이인 남편(김남성 씨)을 만나 결혼하고, 2007년 중국 대련에서 주재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가족 모두가 매우 힘들었던 중국에서의 4년. 평소 농촌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은 퇴사를 결심하고, 귀국 후 본격적인 귀농 준비에 들어갔다. 가족의 새 보금자리로 선택한 곳은 고흥군 대곡마을. 2010년 12월 25일, 이곳으로 귀농한 것이 지금의 공슬기 명인이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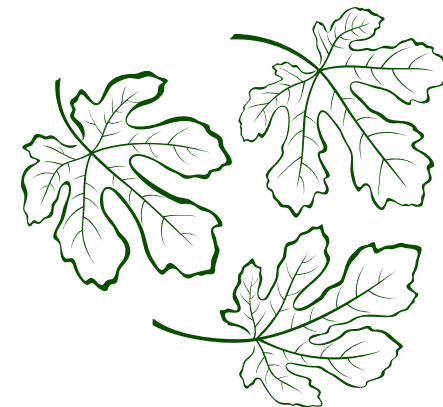


전라남도 유기농명인이 된 부산 토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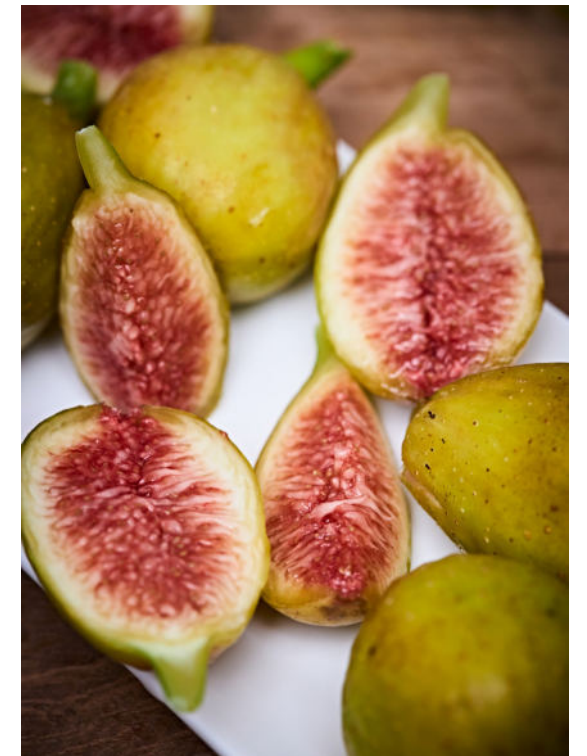
아무런 연고 없는 고흥으로 2010년 크리스마스에 귀농하여, 2022년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제27호'로 선정된 공슬기 명인은 지구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를 생산하기 위해 14년째 노력 중이다. 고흥은 따뜻한 기후와 근처의 바다, 그리고 나지막한 산과 들에 반해서 선택한 곳이었다. “사실 명인이라고 하면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데, 저는 젊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정해 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기농업을 시작한 지 1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땅 살림을 실천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노력했던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농장이라는 의미의 '여화원(如畵園)'은 공 명인이 고흥에서의 꿈과 희망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실제로 '여화원'은 가요 '님과 함께'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는 노랫말이 연상되는 농장으로, 이곳에서 세 아이를 비롯한 다섯 명의 가족이 부족하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느리지만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현재 무화과 농장의 규모는 9,398㎡(약 2,900평)입니다. 무화과 품종은 바나네(청무화과)인데, 다 익어도 껍질이 초록색인 무화과로 크기는 작지만 껍질이 얇고 조직이 치밀하며 당도(평균 23브릭스)가 월등히 높은 품종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잘 재배하지 않는 품종이라서 선택했고, 지금 1,000주 정도 식재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1번지'인 전남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친환경 교육 실시로 전남의 유기농업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유기농명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유기농명인을 소개합니다.



자연순환농법으로 살아있는 땅 만들기

‘여화원’의 무화과는 모두 노지에서 재배하며, 초생재배를 원칙으로 무관수, 무경운 등 자연순환농법을 통해 청무화과만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유통기간이 짧아서 대부분 덜 익은 상태로 수확하여 출하하는 데 비해 ‘여화원’에서는 완숙 무화과를 수확하여 일부 소량 출하하고, 반건조 무화과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건조 무화과는 생과 유통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테스트를 통해 개발했는데, 첨가물 없이 완숙 청무화과만을 건조한 것으로 쫄득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저는 귀농을 준비할 때부터 ‘유기농업이 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힘들고 팔기도 어렵고, 그래서 돈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먹는 것이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농사짓자, 다짐하며 지금까지 유기농업을 하고 있네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귀농 당시,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부산 토박이 공 명인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전남테크노파크, 한국벤처농업대학 등지에서 농업과 관련된 교육이라면 빠짐없이 참여해 공부하였다. 대충 배워서 대충 농사짓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제일 먼저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초생재배를 원칙으로 풀을 키웠고, 그 결과 저희 농장에는 두더지, 지렁이 등 다양한 동식물이 공생하고 있지요. 특히 두더지는 고마운 일꾼인데, 땅속 깊이 누비며 경운 작업을 해줘서 덕분에 무화과나무가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어요. 또한 자란 풀들의 경우 쪼갬기로 활용하니 자연스레 저탄소농업을 실천하게 되었고, 2022년에 저탄소농산물인증도 받았습니다.”



유기농명인 지정서 유기농인증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전남도지사품질인증



농촌융복합산업인증 무화과 가공장치 및 방법 특허



목표는 고흥을 무화과의 신흥 산지로

‘여화원’의 무화과는 ‘일(-)자 모양의 수형으로 재배하는 것도 특징이다. 무화과나무를 식재한 후 50cm 높이로 잘라 싹이 나오면, 목질화가 되기 전에 양옆으로 가지를 유인하여 T자 모양으로 만들어 키우는 방식이다. 공 명인이 일본과 유럽, 이란 등 다양한 해외 자료를 분석해 가며 찾아낸 결과물로, 청무화과는 가지가 곧고 쪽쪽 뻗어 자라는 성질이 있어 수확 및 재배,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에 유기농 청무화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하우스 시설재배이며, 토경이 아닌 양액재배를 하고 있어서 저희와는 재배방법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덜 익은 무화과가 아닌, 완숙 무화과만을 수확해 판매하고요. 저는 ‘여화원’의 무화과를 살아있는 땅이 만드는, 자연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올곧은 맛을 위해서라면 조금 덜 팔더라도 욕심내지 않겠다.’ 이러한 공 명인의 소신이 담긴 무화과를 비롯하여 쑥과 로즈메리, 페퍼민트, 레몬밤 등 ‘여화원’의 생산 작물은 자사몰(yeohwawon.com)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yeohwawon)를 통해서 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친환경 무화과 재배기술을 공유하여 지역 내 농업인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흥이 무화과의 신흥 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농가와 함께하고 싶어요.”

태풍으로 부러진 나무가 다시 잎을 틔우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배웠다는 공 명인. 그렇다.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화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대곡길 85-29



‘워라밸’ 확실한 MZ세대 청년농부

고흥군 ‘봉봉채소농장’ 이창복 대표

청년농업인은 농촌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이자, 미래 전남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전라남도 청년농업인을 소개합니다.



오전 5시 기상, 5시 30분부터 일하기 시작해

11시쯤 마무리하고 12시까지 발주 확인과 택배 송장 작업

등을 한다. 잠시 정리정돈 후 수확을 했으니 다시 육묘작업을

진행할 차례. 부지런히 작업을 마치면 오후 3시, 농부로서의 일과도

끝이다. 이후부터는 다른 또래 청년들처럼 워라밸을 즐기는 MZ세대로

돌아간다. 운동으로 수영을 하고, 저녁식사 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목공수업에 참여한다. 취침은 밤 10시쯤. 이것이 30대 초반인 이창복 대표의 하루다.

조리학과 졸업생이 본 농업의 가능성

“조리학과 졸업 후 입사한 곳이 항공사 기내식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직장인이 되어보니 미래가 너무 뻥할 것 같더라고요. 선배들의 모습에서 직장생활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농업의 발전 가능성과 젊은 저의 나이가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서 귀농을 결심했지요.”

2018년 초, 퇴사한 이창복 대표는 곧바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영농지식과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실습 위주의 장기교육을 통해 영농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0년 교육을 마치고, 엽채류 스마트팜에서 6개월가량 근무하다가 창업을 위하여 고흥에 터를 잡았다.

“고흥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에요. 부모님은 충남 공주에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지요. 부모님을 도와 일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제 힘으로 저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귀농지로 고흥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기후가 따뜻해 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입니다. 제가 귀농지보다 재배 작물을 먼저 결정했는데, 바로 엽채류였거든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도 농사를 처음 짓는 저에게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2021년 봄, 고흥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그 후 1년 동안은 농장 설립에 몰두하였다. 비닐 온실의 외관은 전문업체에 맡겼지만, 배관이나 배수시설 등은 이 대표가 직접 작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6월, 2,600m² 규모의 ‘봉봉채소농장’이 탄생하였다.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1) ‘워라밸’은 워라밸런스(Work-Life Balance)를 줄여 이르는 말로,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이라는 뜻



무농약 인증 받은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

“봉봉은 ‘좋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봉(Bon)’을 두 번 겹쳐서 만든 말로, 사탕이나 과자를 뜻하기도 해요.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의 가장 큰 특징이 달콤해서 쓴맛이 덜하다는 것인데 달콤한 채소를 생산하는 곳, 그래서 ‘봉봉채소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봉봉채소농장’에서 재배 중인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는 스텔릭스, 이자벨, 크리스피아노, 버터헤드, 로메인 등이다. 이들 모두 식감이 매우 부드러워 쌈이나 샐러드로 먹기에 좋으며, 햄버거나 샌드위치 속 재료로도 적합하다. 흙 없이, 물이나 양분배양액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수경재배 방식을 도입하여 채소의 세척이 간편한 것도 특징. 여기에 무농약 인증까지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친환경 채소들이다.

“농사에 있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안전함과 편리함이에요. 무농약과 수경재배는 그것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고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를 첫 재배 작물로 결정한 이유는 생산 기간이 짧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사업에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입되는 경영비용에도 어느 순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샐러드 시장의 성장 규모와 발전 가능성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분석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의 이 대표였지만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사업 초기, 육묘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또한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판매 채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목표는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시장 상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도움이 컸다. 지난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과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교육’에 참여한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유용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방식의 하나로 부각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교육 후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35분 동안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 700박스를 모두 소진하는 완판을 기록하였다.

“2024년은 1억 3천만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판매량이 1kg 기준으로 채소 50박스 정도 되는 셈이지요. 요즘은 동남아시아 채소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농촌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그분들과 협업하여 일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조리학과 출신으로 요리 좀 해본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식재료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 대표. 그러한 단점 없이 가볍게 찢어서 먹을 수 있는 ‘봉봉채소농장’의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bongbong2022)와 고흥군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몰(go-hmall.com)에서 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다.

“농업회사법인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농산물은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러한 변동성은 큰 리스크가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테지만 도전을 통해 저를 발전시키고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성공을 꿈꾸며 고흥에서 인생 2막을 연 이 대표가 만들어갈 미래의 농촌. MZ세대 청년농부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



봉봉채소농장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장촌길 41



3대째 전통한과의 맥을 잇다

곡성군 '자매가' 최미라 대표

전라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편입니다. 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을 소개합니다.



언니 최선미

동생 최미라



명절을 맞아 고향집을 찾는 자식과 손주에게 먹이기 위해서 시골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만들었던 한과는 언제 모르게 그리운 맛으로 기억되는 음식이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내면서도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러한 적정함이 매력인 한과. 최미라 대표의 외할머니도 명절이면 으레 한과를 만들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었는데, 한과 맛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솜씨를 물려받아 3대째 전통한과를 만드는 곳이 바로 '자매가'이다.



만언니와 막넛동생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자매가'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솜씨를 네 자매 중 첫째와 넷째가 물려받아 '자매가'라는 이름으로, 3대째 전통 방식 그대로 숯불에 구운 전통한과를 만들고 있다. '자매가'는 산 아래 자매의 집, 두 자매가 만드는 집이라는 뜻으로 만언니 최선미 씨와 막넛동생 최미라 대표가 한 터에 모여 공동 운영하는 가공식품기업이다.

“2016년 소규모 가공식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9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자매가'는 대지 200평, 건물 45평에 시설을 갖추고 영업 중인데요, 사실 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자매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전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주력 상품인 '숯불향과'의 경우 숯불로 구워낸 유과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할 수 없지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최 대표는 수원에 거주 중인 만언니를 설득해 고향인 곡성으로 함께 돌아왔다. 막연하게나마 귀농 계획이 있었지만, 맞벌이로 인해 친정에서 돌봐주고 있던 딸이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생활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딸을 만나기 위해 서울과 곡성을 2주 간격으로, 3년 이상 왕복했던 최 대표였다.

“저에게 시골에서의 생활은 좋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곡성에서 마음에 드는 집터를 찾았는데, 너무 넓어서 혼자서는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잘 맞는 큰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언니가 승낙했고, 그 집터에 서로의 집이 마주보게끔 집부터 지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숯불에서 구워 만드는 ‘숯불향과’

고향에 내려온 후 최 대표 자매는 어머니를 도와 한과를 만들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어머니가 손을 놓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솜씨를 물려받게 되었다. 전통한과에 큰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를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최 대표는 생각했었다.

“일하다 보니 전통 방식으로 한과를 만드는 곳이 극소수더라고요.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겨서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한과의 제품 품질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곡성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 강소농에 등록한 최 대표는 강소농 농업경영개선교육을 비롯해 e-비즈니스, 마케팅, 명품대학 등의 교육에 참여하였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강소농 컨설턴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최 대표가 시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제품과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3대째 전통한과를 만드니까, 전해 내려오는 비법 같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주력 상품인 ‘숯불향과’는 기름에 튀기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품질 좋은 쌀과 적당히 건조된 반대기, 그리고 화력 좋은 참숯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거든요. 최소 400도 이상의 온도인 참숯에서 직접 손으로 뒤집어가며 굽습니다.”

수작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건조시간이나 숯불에서 구워낼 때의 온도 등 미세한 차이로 달라지는 맛에 대한 조절이 수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계를 사용하면 몸은 훨씬 편해지겠지만, 전통의 맛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업을 이어 전통의 맛을 지킨다는 자부심

‘자매가’에서는 자체 브랜드인 ‘숯불향과’ 외에도 김부각과 토란떡파이, 누룽지맛 쌀강정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단, ‘숯불향과’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만 생산하며, 김부각의 경우 주 1회 생산·생산 당일 택배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유당제품이 아니어서 ‘숯불향과’는 오래 보관해도 기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로 긴 것도 장점이지요. 김부각은 쌀가루가 아닌 찹쌀에 곡성 특산물인 토란을 가미한 토란김부각과 순수 찹쌀김부각, 두 종류인데 재래김으로 만들어서 얇고 바삭한 것이 특징입니다. 토란떡파이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간식으로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 기술이전 받은 제품이에요.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특히 좋아요.”



대대로 내려온 전통 생산방식에 자매의 각별한 정성이 담긴 ‘자매가’의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jamaega)와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몰(gokseongmall.com)에서 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다.

“한과를 만들어 보셨던 어르신들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전통한과의 맛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하세요. 사실 숙련자가 아니면 생산이 까다로운 제품이다 보니 대량 생산이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저의 계획이자 목표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전통 방식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 딸이 이 일을 물려받고 싶어 할 때까지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노력하는 최 대표 자매. ‘자매가’는 우리의 전통한과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오늘도 성장 중이다.☺



자매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오죽로 114-37

기계화로 앞당기는 고효율 농업

영광군 '농업회사법인 주희영농(주)'
김대연 대표

글·사진 | 정환정 작가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분야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농업분야는 그 어떤 곳보다 자동화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가장 큰 곳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농촌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농업회사법인 주희영농(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그러나 예정되었던 귀농

“태어나고 자란 곳은 영광이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해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웠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김대연 대표는 그런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농사지으며 고생하신 이유가 아들의 편한 서울 생활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김 대표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대표에게 귀농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과 다름없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건강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농사지을 수는 없는 형편이었기에 김 대표의 귀농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오던 농사였지만, 자신의 일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어떻게든 빨리 농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어머니는 물론, 영광군농업기술센터와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농사를 배웠다.

“대파는 보통 겨울대파와 봄대파로 나뉩니다. 5월에 정식해서 11월과 12월 사이에 수확하는 겨울대파는 중생종, 9월에 정식해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4월쯤 수확하는 봄대파는 만생종으로 분류하지요. 두 종류 모두 정식할 때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물론 성장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고요.”

집중관리 시기가 지나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다른 작물과 달리, 수확까지 투여되는 노동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대파. 그렇지만 시세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 폭이 크다고 한다. 김 대표가 기계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은 다양한 지역과 다변하는 환경에 적용 가능한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전라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영체를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하여 경영모델이 된 선도농가를 소개합니다.



위험부담을 낮추는 최선의 선택, 영농 효율화

농업만큼 변수가 다양한 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날씨도, 인력 수급도, 생산량과 수요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수익을 예상하는 것 역시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도전과 마찬가지로 한다.

“그렇다면 생산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효율을 높여서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지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귀농 이듬해부터 김 대표는 기계를 이용해 대파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이식기로 대파를 정식했고, 드론을 통해 방제를 진행하였다. 영광에서 대파 농사에 기계를 동원한 것은 처음이었던 터라, 김 대표의 행동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개중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농사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기에, 그리고 앞으로는 인력 구하는 일이 더욱 힘들어질 것을 확인했기에 기계화에 대한 김 대표의 의지는 확고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트랙터였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릴 수 있었지만,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파 생력기계화 일관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모델**’을 **기획해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2022년 김 대표가 제시한 생산비 절감 모델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덕분에 트랙터와 승용 대파 이식기, 소형 경운기인 로터리를 지원받았다. 그렇다면 지원받은 후 ‘농업회사법인 주희영농(주)’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훨씬 줄었어요. 비용만 계산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던 때의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간적 여유도 생겼다. 작업이 일찍 마무리되다 보니 선배와 함께 대파 종자를 키워 농가에 판매함으로써 부수입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도 효율이 발생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다. 모두 기계화가 가져다준 선물이었다.



농업회사법인 주희영농(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길4길 72-12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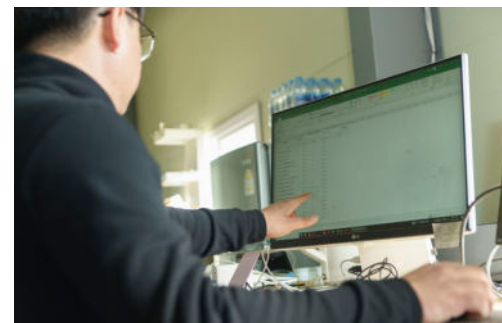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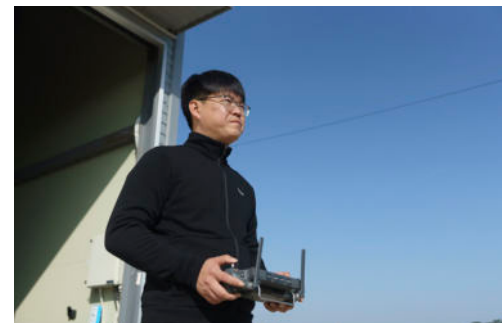
‘농업회사법인 주희영농(주)’은 대파 1만 평, 벼 2만 6천 평, 콩 3천 6백 평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다. 이중 대파는 수확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계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듯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계화의 장점을 직접 목격한 주변 농가들도 김 대표를 따라 적극적으로 기계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당분간은 규모를 더 키울 계획이 없습니다.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다양한 지원도 받았지만 저 역시 작지 않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지런히 빚을 갚아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농사짓던 곳으로 귀농했음에도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는 김 대표. 그래서 자신처럼 귀농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서로 힘을 합하고 지혜를 더한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올바른 마음가짐만 갖고 있다면 농촌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를 농업만큼 온전히 돌려주는 분야도 없으니까요.”

확고한 믿음은 꽤 힘이 세다. 도전을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의 원천이기에. 믿음은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고, 마침내 운명이 될 것이다. ☺



활력 넘치는 농촌 실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글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
농촌지원과 곽예은 지도사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첨단 농업기술과 영농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센터를 소개합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98년 12월 31일, 강진군 농촌지도소에서 지금의 명칭으로 개칭된 이래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1과(농촌지원과)·1실(연구개발실)·9팀(지도기획, 인력육성, 교육정보, 귀농지원, 농업기계, 작물연구, 원예연구, 꽃지원, 축산연구팀) 53명의 직원이 전국 제일의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실천에 최우선을 두고, 소득작물 개발 보급 및 생산된 농산물 판매 촉진에 앞장서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85



살고 싶은 귀농·귀촌 1번지 ‘강진군’

강진군은 친환경인증 쌀, 강진쌀귀리, 수국·꽃작약 등 화훼와 토하·매주 등 우수한 농수산물, 그리고 천년의 신비 고려청자 도요지, 다산초당, 영랑생가 등 문화유적지로 가득한 곳이다. 특히 ‘귀농 1번지’로 명성이 자자한 만큼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도시민들이 귀농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06년부터 귀농인을 적극 유치한 데 이어, 2007년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정착 보조사업, 귀농 융자사업을 비롯해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강진에 체류하며 농촌생활에 적응하고, 농업창업 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강진군에서 추진 중인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로 귀농인의 궁금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더 나은 귀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강진군을 위해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계절 꽃묘를 생산하여 군 경관 조성에 활용 중이다. 사계절 및 각종 행사용 꽃묘를 연중 40만 본 이상 생산하고, 육묘장의 부족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올해 18개소의 농가에 위탁해 꽃묘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대구면·성전면 등 각 읍면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고, 강진읍·작천면에 공원도 조성하여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맞아 강진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생물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가공센터



가공센터



토양검정



현장 평가회

‘강진군농업기술센터’의 2024년 추진계획

2024년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한 청년농업인 육성, 프리미엄급 미호벼 브랜드화, 지역맞춤 규모화 전략 과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농사에 전혀 문외한인 신규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영농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2개소,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 훈련을 마친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소유의 스마트팜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농산업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으로 초기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 3개소를 추진하고, 2월에 최종 선정된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스마트팜 법인 등 인프라를 통한 인큐베이팅과 판로 확보, 사업대상지 인근 빈집 제공과 청년농 리빙랩 추진 등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정착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생물 공급



면담

두 번째는 기능성 쌀 시장 선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프리미엄급 미호벼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미호벼는 맵쌀에 찰벼를 섞은 것처럼 밥을 지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밥알의 찰성, 경도 및 윤기 등 품질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식미가 우수한 품종으로 농가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고품질 미호벼 원료곡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전용시설 보완을 통해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지역맞춤 전략작물을 육성한다. 강진군은 토양이 비옥하고 일조량이 많아 딸기, 포도, 아열대 과수 도입에 유리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재배기반 조성, 육묘 전문농가 육성, 딸기묘 월동 냉동저장 기술 보급, 삼목육묘 기술 투입 등을 통하여 ‘최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포도 규격품 안정생산 및 적정 재배환경 조성을 통한 ‘명품포도 특화단지 조성’으로 강진포도 이미지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향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 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024년 학사운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추진한 디지털농업대학이 가장 대표적이다. 디지털농업대학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농업인 교육도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존 농업재배 기술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기술 및 농산물 마케팅 등의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올해 녹색문화대학의 후속으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스마트 한우, 시설원예스마트팜, 인플루언서마케팅 3개 과정 107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교육생들이 신기술과 경영기법을 습득하여 농업분야에서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 보급 및 ICT 기술 확산을 위해 지역특화품목 교육 운영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SNS 콘텐츠 제작, 유튜브 활용 등의 농업인 1인 미디어 교육, 농가의 브랜드 개발 교육 및 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구축 예정인 라이브 방송 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확대해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및 실습 중심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교육 활동의 다양화로 디지털농업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농촌에

활력을



농촌



활력

전남농장, 여기 어때	함평군 '이리네농장'	50
귀농·귀촌 길잡이	귀농·귀촌해서 '함평'하자!	54
글로벌 팜	커지는 중국 간편식품 시장 속 인기상품 및 수요 트렌드	56
농UP 테크	간편하게 즐기는 분말·액상 차음료 신제품 개발	60
병해충정보	마늘·양파 병해충 방제	6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웃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7,700가구에서 올해 9,000가구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가구를 확대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및 297개 읍면동에 319개의 복지기동대가 구성되어 전등·창틀 교체 등 소규모 수리를 통해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합니다.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든직한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하다

농촌교육· 체험·치유가 전부 가능한 자연의 공간

함평군 ‘이리네농장’



농촌교육농장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는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민에게는 귀농·귀촌 및 힐링 체험장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함평군 ‘이리네농장’은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취득했으며, 2022년에는 전라남도 주관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유농장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지원받았다.

가족이 함께 방문하면 좋은 곳.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 인식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줄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농촌교육농장과 치유농장, 체험농장을 소개합니다.



‘이리네농장’은 천혜의 청정 지역인 함평군 손불면에 위치한 곳으로, 2015년부터 체험농장을 시작하였다. 미니밤호박, 백향과 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교육과 힐링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약 400평을 포함한 백향과 및 미니밤호박 농장 1,300평과 체험장 80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백향과가 재배되는 온실에서 체험을 진행하기에 사시사철 푸르른 백향과를 즐길 수 있고, 단출한 산책로와 동물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시설

- 체험장
- 느림보길
- 동물농장
- 공방수
- 화장실 등



‘2022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1,200만 원 상당의 피자 오븐 구매, 소수의 참가자로 운영했던 피자 만들기 체험의 대규모 진행이 가능해졌으며, 농장 내 음향과 조명 등의 시설 투자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리네농장’은 백향과 하우스를 활용한 카페형 치유 교육장을 조성하여 느림보길 걷기, 피자 만들기, 미술 치유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 가족 외에 귀농·귀촌 농가와 진로직업체험 희망자, 장애인 복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이리네농장’의 프로그램 참여는 주로 예약제로, 연중 상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

백향과청 만들기 체험

‘이리네농장’에서 재배한 백향과로 새콤달콤한 맛의 백향과청을 만드는 체험이다. 백향과 수확기에는 생과를 사용하며, 그 외 기간에는 퓨레로 진행한다. 만든 백향과청은 에이드, 샐러드드레싱, 요거트 토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먹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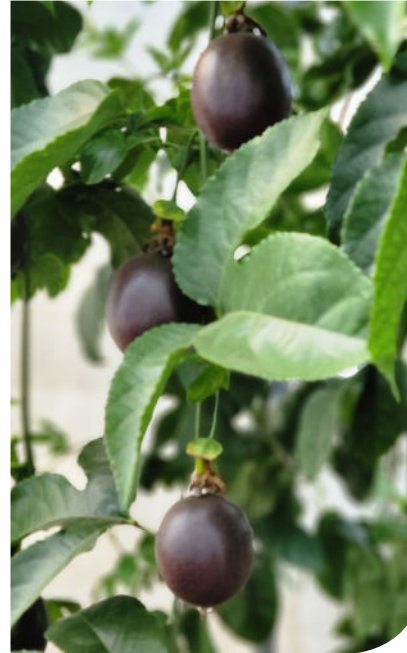
채소피자 만들기 체험

‘이리네농장’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채소와 밤호박 소스를 이용하여 건강한 피자를 만들어 보는 체험이다. 오븐에서 갓 구워 신선하고 담백한 맛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

동물 교감 체험

흑염소와 닭, 토끼 등 동물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촉진시키는 체험이다.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며,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① 채소피자 만들기 체험
- ② 느림보길 걷기 체험
- ③ 동물 교감 체험
- ④ 백향과청 만들기 체험



‘이리네농장’의 농장명은 최정일 대표의 이름 끝 자에서 따온 것으로, 인천에서 함평으로 귀농한 최정일·변수정 부부가 설립하였다. 부부는 ‘요농부(요리하는 농부, 최정일)’와 ‘그농부(그림 그리는 농부, 변수정)’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함께 농장과 공방을 운영 중이다. 체험 예약은 최소 3일 전에 해야 하며, 자세한 정보와 문의 등 연락처는 ‘이리네농장 홈페이지(ilee.modoo.at)’와 ‘이리네농장 블로그(blog.naver.com/podo01)’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이리네농장’ 최정일 대표

인천에서 자영업업을 하던 최 대표는 2011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장모님과 아내를 위해 장모님의 고향인 함평으로 내려왔다. 귀농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오로지 장모님과 아내의 치유만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공기 맑은 곳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다 보니 아내의 건강이 좋아졌고 그동안 농촌생활에 적응하며 미래를 고민하던 최 대표는 2013년 농사에 뛰어들었다. 그 후 나 자신을 속이고 농사에 임하면 고객을 속이는 일이다라는 신념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리네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소 |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복성길 110-14

귀농귀촌해서 ‘함평’하자!

출처 | 함평군청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

귀농·귀촌으로 전라남도에서 새로운 인생 설계에 도전하세요.
전라남도 시군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함평군은 신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하여, 예비 귀농인들이 일정기간 함께 체류하며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현장체험 지원시설인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모집규모는 총 21세대(기숙형 원룸 12세대, 단독주택 9세대)로, 매년 1~2월에 입교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교육을 진행한다.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입교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작물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교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농업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개인 텃밭과 시설하우스를 제공하여 입교생 스스로 작물에 대한 생산부터 재배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 농업인 및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3~7월에 걸쳐 총 15회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 지역민과의 갈등관리, 친환경농업 유용 미생물 활용교육, 농지제도 안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 등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필수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평군은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꽃과 나비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동쪽으로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남쪽으로 무안군, 북쪽으로는 영광군과 장성군에 접해 있으며 서쪽은 함평만이다.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귀농·귀촌의 메카로 도약 중이며, 최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연관기업의 잇따른 유치로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정구역 1읍, 8면 *면적 392.1km² (전남의 3.2%)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입교식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 교육



단독주택 실습교육



관내 선도농장 견학



포도 재배 이론교육



관내 선도농장 견학

함평군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사업대상 -도시에서 농업 외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 -전입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혹은 전입 예정인 자,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액: 농업창업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세대당 최대 75백만 원 ·융자조건: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사업내용: 농지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구입, 주택 구입 등 ·문의처: 함평군청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061-320-2132)
귀농귀촌분야 보조사업	·사업구분: 2종(영농 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 ·사업대상 -도시에서 농업 외 산업 1년 이상 종사자,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영농경력 1년 이상,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 ·사업내용 -영농 정착 지원: 농지 구입, 축사, 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 신축 및 구입 -농가주택 수리: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문의처: 함평군청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061-320-2132)
귀농인의 집 운영	·운영규모: 4개소(함평읍, 손불면, 나산면, 해보면) ·임대조건: 월 15만 원 / 최대 1년 이내 ·사업내용: 예비 귀농인이 일정기간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제공 ·문의처: (재)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061-323-0089)
쉼터 빈집 재생사업 '윜표 하우스' 운영	·운영규모: 25개소 ·임대조건: 월 15만 원 / 최대 1년 이내 ·사업내용: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임대주택 공급 ·문의처: 함평군청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061-320-2132)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	·위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97번지 일원 ·부지면적: 15,385m ² ·주요시설: 기숙사, 단독주택, 시설하우스, 텃밭, 영농교육관, 쉼터 등 ·사업내용: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문의처: 함평군청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061-320-2133)

※ 문의
•종합안내: 함평군청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 (061-320-2131~3)
•귀농교육: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 (061-320-2474)
•상담: 함평군귀농귀촌상담센터 (061-323-0089))

커지는 중국 간편식품 시장 속 인기상품 및 수요 트렌드

글 | 중국 난징무역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이슈와 전 세계 128개 해외 무역관이 수집한 시장정보 중에서 전라남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농업 관련 해외시장 뉴스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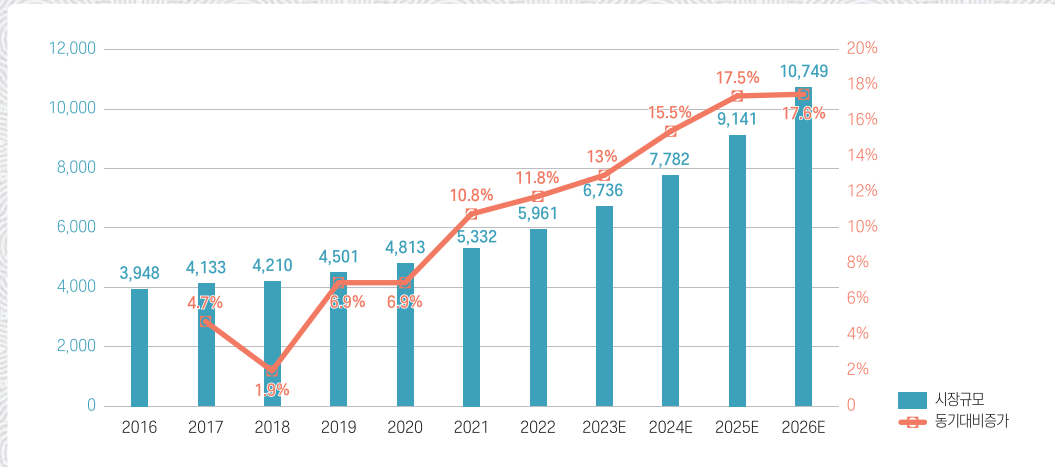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iiMedia Research (艾媒諮詢)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간편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2년 기준 5,961억 위안 수준에 달하였다. 특히 2021년 밀키트의 등장으로 간편식품의 종류가 증가했으며, 이에 관련 식품기업이 속속 다양한 상품을 개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보고서에서는 2026년까지 중국 간편식품 시장이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간편식품(方便食品)은 반조리 식품 또는 완제품을 포함해 즉석식품, 냉동식품, 건조분말식품, 통조림, 밀키트, 라면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조리·휴대·보관 등이 용이한 장점으로 인해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 문화가 줄고 ‘재택 경제’,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 방식이 유행하면서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높아졌다.

<2016~2026년 중국 간편식품 산업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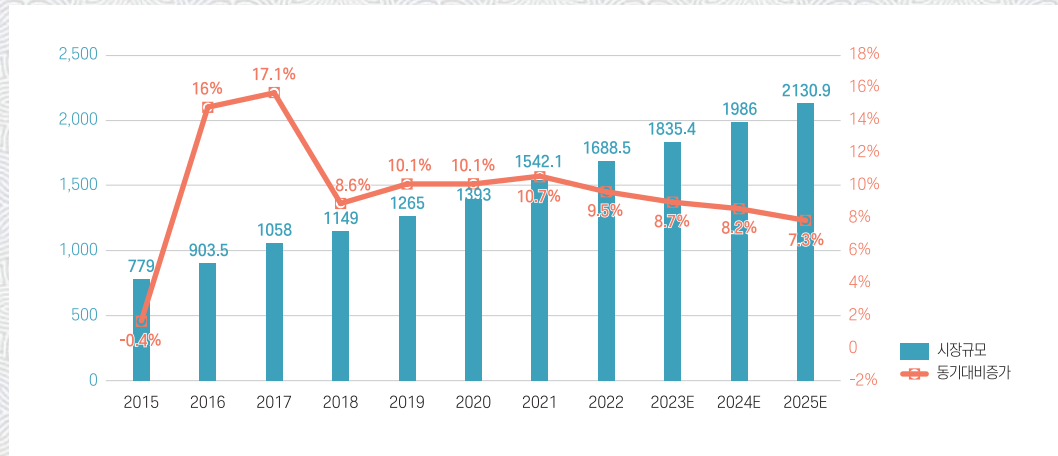
(자료: iiMedia Research)



iiMedia Research는 중국 냉동식품의 시장 규모는 2022년 1,688억 5,000만 위안에서 2025년 2,130억 9,000만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증가와 함께 편리하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 고가의 냉동식품에 대한 구매력도 늘어나면서 중국 냉동식품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25년 중국 냉동식품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위안, %)



(자료: iiMedia Research)

중국 냉동식품의 원재료인 곡물 및 육류 생산량은 2022년 기준 각각 6억 8,652만 800톤, 9,328만 400톤이었으며 해마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쌀, 밀가루 등은 일반 냉동식품의 주요 원료로서, 이들 곡물의 생산량 증가는 곧 냉동식품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의미한다.

중국 냉동식품 관련 생산기업은 주로 허난성, 산둥성, 광둥성 등지에 분포해 있는데 대표적 선두기업인 썬취엔 식품유한공사(三全食品股份有限公司), 쓰넨식품유한공사(思念食品有限公司) 등이 모두 허난성에 소재하고 있다. 허난성 정저우의 냉동식품 산업은 중국 전체의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확대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중국 식품업체들은 기존 전통적인 냉동식품인 탕위안(湯圓), 물만두, 만터우(饅頭) 등 만두류 외에도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냉동식품 기업>

업체	지역	경영 범위	제품 이미지
썬취엔식품 (三全食品)	허난성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통조림, 전통 다과(糕點) 및 기타 식품의 생산 및 판매	
안징식품 (安井食品)	푸젠성	냉동훠궐(火鍋)재료, 냉동국수, 냉동쌀, 냉동밀키트 등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쓰넨식품 (思念食品)	허난성	생 탕위안(生湯圓), 물만두, 쑹즈(粽子)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간편식품, 선포장식품, 조리제품의 생산, 가공 및 판매	

(자료: 각 기업 공식 홈페이지)

밀키트는 조리법이 간단하고 종류도 다양하여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간편식품 중 하나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입 등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밀키트 시장도 급속 성장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iiMedia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 밀키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4,196억 위안이었으며, 2026년에는 1조 72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문서 1호에서 밀키트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도 밀키트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밀키트 생산기업이 늘어나면서 시장 경쟁도 치열해졌다. 중국의 대표적 밀키트 기업인 웨이즈샹(味知香)은 주로 육류 관련 제품을 생산하며, 치엔웨이양추(千味央廚)는 쌀, 밀가루 등 곡물을 주원료로 한 냉동밀키트 제품을, 귀렌수산(國聯水產)은 수산물 관련 밀키트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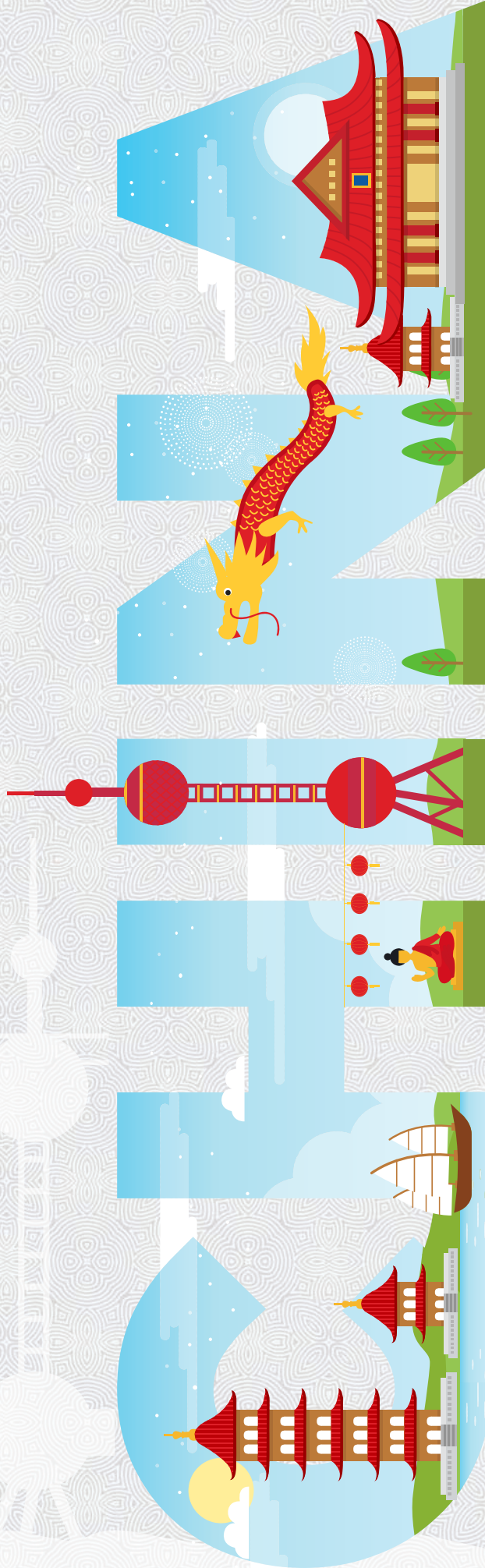
<중국의 대표적인 밀키트 생산 기업>

업체	지역	경영 범위	제품 이미지
웨이즈샹 (味知香)	장쑤성	육류, 가금류 및 수산물 등의 반조리 식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	
치엔웨이양추 (千味央廚)	허난성	주로 쌀과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냉동제품 생산 판매. 케이터링, 호텔,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 밀키트 제공	
귀렌수산 (國聯水產)	광둥성	해산물 밀키트 연구 개발	

(자료: 각 기업 공식 홈페이지)

중국 식품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1인 간편식’, ‘Z세대’, ‘재택생활’ 등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라면 소비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면은 특히 간편한 조리법과 보관 용이성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섭취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중국 라면 시장 규모는 1,823억 8,000만 위안에 달했고, 2025년에는 2,312억 3,000만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라면 브랜드인 캉스푸(康師傅)와 퉁이(統一)는 중국 라면 시장의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스턴트식품 종류가 많아지고 배달 서비스도 보편화되면서 기존 대표적인 인스턴트 제품이었던 라면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소비자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의 라면 생산 기업들은 가격대가 높은 고급 라면을 출시하는 등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iiMedia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소비자의 간편식품에 대한 소비금액은 전년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비하는 배경도 출장, 여행, 가정, 사무실, 캠핑, 소풍 등 광범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소비자들이 간편식품을 선택하는 주요 원인은 식사시간 절약, 휴대 용이성 등이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간편식품 중에서 라면 및 즉석밥(75.5%)이 가장 구매 비중이 높았고 즉석식품(74.7%), 냉동식품(68.1%) 순으로 나타났다. 밀키트(28.5%) 역시 통조림(37.4%)에 이어 일부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가 간편식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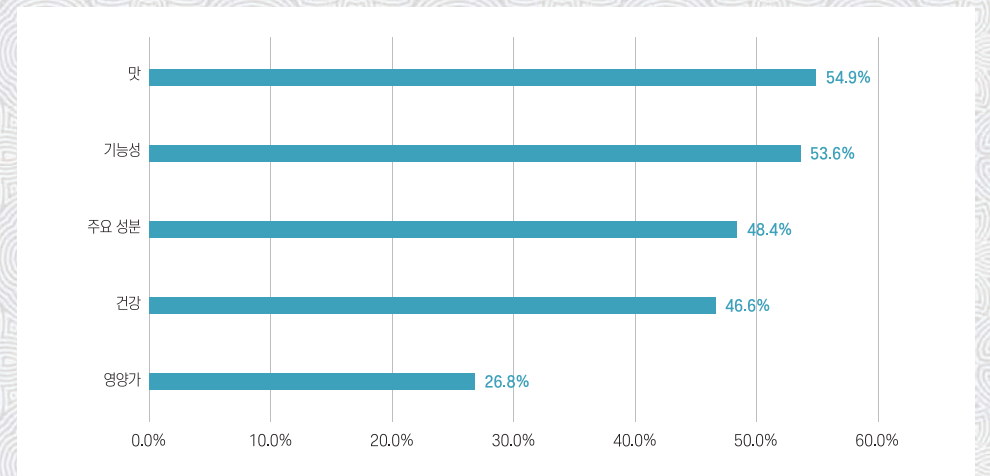
구매하는 주요 원인은 ‘맛’과 ‘기호’(71.0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조리 간편성’ 및 ‘신속성’(63.1%)이 그 뒤를 이었다.

간편식품 산업의 유통방식 역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가 대세였다면, 이제 온라인 주문을 통한 소비는 대체할 수 없는 유통방식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매(71.5%) 비중이 슈퍼마켓(48.8%), 편의점(49.2%) 등 오프라인 매장 구매 비중을 추월하는 결과를 보였다. 온오프라인 유통방식이 공존하는 형태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 역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판매 채널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시사점

간편식품의 퀄리티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Media Research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간편식품의 맛, 안전성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품질이 제고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의 간편식품 품질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는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 고급화, 다양화를 위한 연구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023년 중국 소비자의 간편식품에 대한 니즈>



(자료: iiMedia Research)

난징 쉬과마트(蘇果超市) 관계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간편식품 외에 류저우웬쓰펀(柳州螺蛳粉, 우렁이 쌀국수), 운남 쌀국수 등과 같이 중국의 지역적 특색이 담긴 새로운 간편식품이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iiMedia Research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95후’ 및 ‘00후’, 즉 1995년~2000년 이후 출생자들이 신혼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면서 시장 수요 역시 더욱 세분화,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밝히며 “식품 관련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의 소비 습관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자료: iiMedia Research(艾媒諮詢), 중국 국가통계국, 인민망(人民網), 기업 홈페이지, KOTRA 난징무역관 자료 종합

간편하게 즐기는 분말·액상 차음료 신제품 개발

글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정아영·정미진 연구사

가능성 농식품, 농작물 신제품 등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농업정보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인의 건강이 중요시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차를 포함한 식품의 최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의 시행과 더불어 체지방 감소, 심신 안정, 숙취 해소 등 기능성이 강조된 일반식품 출시가 1년 사이 25배 증가하였고(226. 기준), 휴대가 간편하며 용량이 작고 농축된 형태의 소포장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차음료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건강 기능성뿐만 아니라 국산 재료의 사용, 다양한 맛, 음용의 편리성을 갖춘 차 제품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 연구소에서는 변화하는 국내의 차음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산 차 원료의 소비를 증진하고자 맛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간편음료 신제품 4종을 개발하였다. 차의 기능성 유효성분 함량을 높이고, 분말과 액상 형태로 소재화하는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 번거로운 전통식 차 음용 방식에서 탈피한 요즘 시대의 차(茶)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스틱 분말 1포로 톡! 민트그린티애플과 호지차 음료

이번에 개발한 분말음료 2종 중 ‘민트그린티애플’은 우리나라 토종 허브인 방앗잎차와 보성산 녹차 혼합추출물로 만든 음료이다. 높은 항산화 활성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는 로즈마린산, 혈관 내 콜레스테롤 저하와 항염 효과가 있는 티리아닌, 체지방 감소 및 항당뇨 효과가 있는 카테킨 추출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구명하여 유용성분을 극대화하였다. 또 한 가지의 핵심 기술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폴리덱스트로스를 이용하여 위 추출물을 분말 형태로 바꾼 소재화 기술이다. 폴리덱스트로스는 저칼로리의 다당류로서 섭취 시 사람의 장내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쓴맛 등 불쾌한 향미를 나타낼 수 있는 추출물 내 유용성분을 미세하게 캡슐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녹차허브추출 분말에 사과즙 분말로 싱그러움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민트그린티애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말 형태의 식이섬유 차음료를 완성하였다.

‘호지차’는 녹차의 어린 가지를 로스팅하여 만들었으며, 구수한 향미가 있고 찬물에 우려 음용 시에도 일반 잎 녹차와 달리 쓰거나 떼은맛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녹차의 어린 가지에는 잎에 비해 카페인 성분이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함유되어 있는데, 최근 저카페인 시장이 확장되고 있어 ‘호지차’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차산업연구소에서는 일상적으로 음용하기에 적합한 구수한 맛의 저카페인 녹차 음료를 만들고자 ‘호지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카페인 추출량이 낮으면서 발향 정도가 높은 열수추출 조건을 구명하였으며, 원심박막농축 후 분무건조 과정을 통해 수율과 향강도, 색도, 수분용해지수가 우수한 호지차추출 농축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소재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여기에 프리바이오틱스 물질인 프락토올리고당을 배합하여 최종 레시피를 완성했으며, 물에 잘 녹으면서도 떼은맛이 적기 때문에 보리차처럼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 차음료 제품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테아플라빈 함량 높은 국산 홍차 농축액, 포션형 베이스 음료로 변신

국내 유통 중인 식음료용 홍차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국내에서 제조되는 홍차가 대부분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어 품질이 불균일하고, 수입산에 비해 비교적 색도와 향의 강도가 낮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차산업연구소에서는 국산 홍차의 경쟁력 향상과 품질 균일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개선된 홍차 제조방법을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 테아플라빈 및 갈산의 함량이 증진된 홍차의 숙성 제조방법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테아플라빈은 홍차의 산화과정 중에 생성되어 적색을 나타내는 주요 품질 지표 성분으로, 체지방 감소 및 심혈관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기능성 성분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산 홍차 원료를 사용하여 열수추출 대비 테아플라빈 함량이 약 18배 증가한 농축액 제조조건을 구명하였으며, 위 농축액을 사용하여 2종의 포션형 베이스 음료를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과일홍차베이스 2종은 전남의 특산품인 유자와 키위를 홍차 농축액과 함께 블렌딩함으로써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를 맞춘 제품이다. 액상 제형으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냉수, 온수, 아이스크림, 탄산수 등



정아영 연구사

취향에 맞게 레시피를 만들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맛과 편리성, 두 가지를 다 갖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가칭)에서 개최된 전남우수농식품 품평대회에 출품 후 호평을 받아 상품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현재 차산업연구소에서는 개발된 기술이 상업화될 수 있도록 간편음료 4종에 대한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였다. 해당 제품은 정량의 물만 있으면 바로 타서 마실 수 있는 스틱형(분말음료)과 포션형(액상베이스)으로 제작하였으며, 소비자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기호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품 생산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차음료 소재화 기술은 도 내외 차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간편하고 다채로운 차 제품 개발을 통해 다류 소비가 대중화 되고 차(茶) 시장이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미진 연구사

마늘·양파 병해충 방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영농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농작물 병해충 관련 정보를 도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병해충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마늘·양파 흑색썩음균핵병

- **발생:** 연작 또는 습한 토양에서 주로 발생하며, 4월 하순까지 작물에 피해를 줌
- **증상:** 아랫잎부터 황갈색으로 변하며 구근에는 흰 균사 발생, 구근껍질이 검게 변한 후 물러지고 결국 지상부 전체가 시들어 노랗게 마름
- **방제:** 물빠짐(배수) 관리와 적용약제를 통한 사전 방제가 중요하며, 병든 포기는 즉시 제거하고 발생 시 관주 처리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마늘 흑색썩음균핵병(포장)

마늘·양파 잎마름병

- **발생:** 온·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곰팡이병으로, 특히 4~5월 생육 후기에 발생이 많음
- **증상:** 잎에 회백색의 작은 반점이 점차 상하로 길게 확대되면서 적갈색으로 변하며 말라죽음
- **방제:** 균형 시비를 하고, 발생 초기 등록약제를 살포하여 방제



양파 잎마름병



마늘 잎마름병(포장 전경)

마늘·양파 고자리파리·뿌리응애

- **발생:** 4월 중순이 발생 최성기이며, 주로 산성토양과 성충의 번식처가 되는 미숙 퇴비 사용 포장에서 발생
- **증상:** 애벌레가 뿌리를 가해하여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아랫잎부터 노랗게 변하고, 진전 시 포기 전체가 말라죽음
- **방제:** 사전 방제가 중요하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토양살충제를 뿌린 후 흙과 잘 섞이게 하고, 비닐피복 재배 시 뿌리 부근으로 관주 처리



마늘 고자리파리 발생 포장



고자리파리 발생 인편부 피해 증상

마늘 잎집썩음병

- **발생:** 10℃ 전후의 다습한 환경, 또는 밀식으로 통풍이 불량한 환경에서 발병이 쉬움
- **증상:** 아랫잎부터 황화되고 잎의 엽맥을 따라 담갈색 줄무늬 모양으로 길게 번식, 마늘의 잎집이 담갈색으로 변해 썩어 들어가고 진전 시 줄기와 구까지 부패
- **방제:** 사전 약제가 중요하나, 발생 후에는 병든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적용약제를 관주 처리



마늘 잎집썩음병 발생 병반



병 발생으로 줄기 전체가 물러짐

양파 노균병

- **발생:**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음(20℃ 전후) 환경에서 발생이 많으며, 4월 중순에 2차 발생하여 식물체에 피해를 주고 분생포자 형태로 공기전염
- **증상:** 발병 부위는 잎 색이 연해지며 흰색의 소형 얼룩이 생김, 진전 시 반점이 커지고 잎이 구부러져 뒤틀림
- **방제:** 병든 식물체는 즉시 소각, 4월 상순~중순이 방제 적기이며 비 온 뒤 등록약제를 통해 철저히 방제



양파 노균병으로 발생한 소형 얼룩



양파 노균병 발생 포장



전남에

가치를



전남



가치

즐거운 도시농업	눈·코·입이 즐거운 '식용 꽃' 특성과 활용 방법	66
농업재정	전라남도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8
농업인 안전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따라 하기 쉬운 농업인 허리 운동 ①	70 73
농업인 교육	5월·6월 교육 일정	74
독자의 소리		78

봄비(雨)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의 '곡우(穀雨)'는 24절기 중 여섯 번째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곡우에는 못자리를 해야 한다',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 든다' 등 농사와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곡우 무렵에는 '우전차(雨前茶)'를 마시는 풍습이 전해지는데, 우전차는 곡우 전에 수확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특히 전남 보성의 우전차는 은은하고 순한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우전차 한 잔의 여유... 바쁜 시기일수록 심포가 더욱 필요합니다.

더: 하다

눈·코·입이 즐거운 ‘식용 꽃’, 특성과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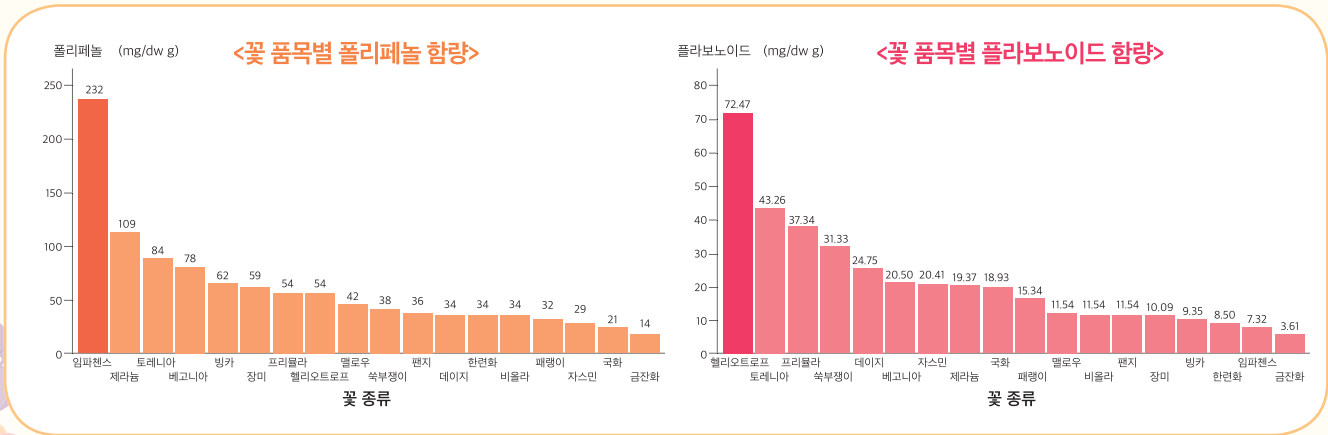
출처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식용 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다양한 꽃차나 꽃술을 비롯하여 화전(花煎) 등을 통해 유채꽃, 진달래꽃, 동백꽃 등을 즐겨 먹었다. 최근에는 샐러드나 비빔밥, 샌드위치 등의 요리에 색과 향기를 돋우기 위한 식재료로 활용되는데, 특히 봄철의식용 꽃은 체력 보강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식용 꽃에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폴리페놀¹⁾과 항균·항암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²⁾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1) 폴리페놀은 노인성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짐
2) 플라보노이드는 체내 산화반응을 완화시켜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활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식용 꽃의 특성

- 식용 꽃에는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성분과 함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팬지, 베고니아, 한련화, 장미 등의 폴리페놀 함량은 14~232mg/g(dw), 플라보노이드는 3.7~72.5mg/g(dw) 수준으로 같은 중량의 채소나 과일에 비해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 식용 꽃은 후각과 시각의 상호작용으로 몸을 더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향은 인위적으로 추출한 향보다 편안함과 관련된 뇌파(알파파)를 5% 증가시키며, 심박수도 5%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등 도시의 텃밭이나 옥상, 베란다 등의 공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존재합니다. 건강과 환경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살펴봅니다.



식용 꽃의 활용 방법

꽃	활용 방법
베고니아	신맛이 강해 육류요리에 곁들이거나 샐러드 등에 넣으면 새콤한 맛이 원기 회복과 식욕을 돋워준다.
한련화	겨자 잎과 비슷한 특 쏘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 생선 요리에 이용하면 생선 특유의 비린 맛을 줄여준다.
팬지	다양한 색상과 귀여운 화형으로 비빔밥 재료나 케이크, 샐러드 등 디저트 음식의 장식용으로 어울린다.
장미	매혹적인 색상과 모양,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향기로 샐러드나 케이크의 재료로 많이 활용된다.
데이지	초밥이나 샌드위치 재료로 사용하면 단맛과 함께 아삭거리는 식감이 잘 어울린다. 쿠키, 케이크 등의 장식용으로도 좋다.
금잔화	특 쏘는 풍미로 샐러드, 파스타, 구운 감자와 같은 음식에 장식하여 먹거나 고기, 생선요리에 곁들이는 소스에 넣는다.
패랭이	다채로운 색감의 패랭이는 꽃잎의 흰심 부분이나 안쪽 끝부분에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라내고 사용한다.
프리물라	꽃과 어린 잎을 샐러드에 넣어서 먹는다. 모양과 색이 예뻐서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에 잘 어울린다.
멜로우	기관지 점막에 자극이 심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따뜻한 차로 마시면 진정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라벤더	안정과 이완효과의 향기로 유명하며, 보랏빛 색감이 음식과 잘 어울리는 재료로 닭요리 등 고기요리에 이용한다.

주의 사항

- 식용 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안전하게 재배된 것을 구매하여 쓰거나, 가정에서 직접 종자를 뿌려 키우는 것이 좋다.
- 미세먼지나 공해 물질이 많은 도로변에 핀 꽃, 꽃집에서 구매한 관상용·장식용 꽃은 함부로 먹지 않도록 한다.

전라남도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전라남도가 더 좋게 달라집니다. 2024년 전라남도 농업·축산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와 시책을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청 식량원예과와 동물방역과에 문의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소규모 농가 지원 확대 (유형: 변경사업)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4년 만에 10만 원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주요 내용	종전	변경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가구당 120만 원 / 연 1회	가구당 130만 원 / 연 1회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을 지급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7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① 농지면적 합이 0.1~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신청 전년도 기준)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600만 원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농지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자에게 지급

-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직불금 신청기간(4~5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식량원예과 식량정책팀 (061-286-6472)

중소농 스마트팜 시설 지원 (유형: 신규사업)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작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원예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온실 설치비용을 개소 당 3억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사업취지: 대규모 농가위주로 지원해 온 스마트온실을 중소농가에 설치 지원함으로써 스마트팜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스마트팜 확산
- 사업내용: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1,500㎡ 이상 신규 설치 지원
* 스마트온실: 내재해형 규격으로 생육환경, 환경정보, 자동제어 시스템 포함
- 사업량: 13개소, 3,900백만 원
(도비 702(18%), 시군비 1,638(42%), 자부담 1,560(40%))
※ (지원단가) 300백만 원 / 개소 당(1,500㎡)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시설원에 재배시설(철골비닐온실 등) 신축 비용과 온실 내의 복합환 경제어, 양액재배시설, 보광·관수·전기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시설하우스 내 자동·원격 제어를 통해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 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노동력 절감에 도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시행연도 기준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신축부지 확보)

※ 문의: 식량원예과 아열대농업팀 (061-286-6481)

양봉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유형: 신규사업)

꿀벌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양봉 농가의 사양과 질병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사업취지: 꿀벌 질병 피해를 최소화 및 경제적 손실 예방
- 사업내용: 양봉농가의 꿀벌 사양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함께 꿀벌 질병, 응애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 및 올바른 처방과 약품 사용 지도
※ 컨설팅 비용: 농가별 4백만 원(240만 원 지원, 160만 원 자부담)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꿀벌 사양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양·질병 컨설팅 연 6회
- 꿀벌 질병 검사(17종) 연 2회 및 필요시 추가 검사 실시
- 응애 감염 여부 및 내성 응애 검사 연 2회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가(100봉군 이상)
-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 시·군에서 응애 등 질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농가
- 기타 사업 참여 희망 농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양봉농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 문의: 동물방역과 동물방역팀 (061-286-6573)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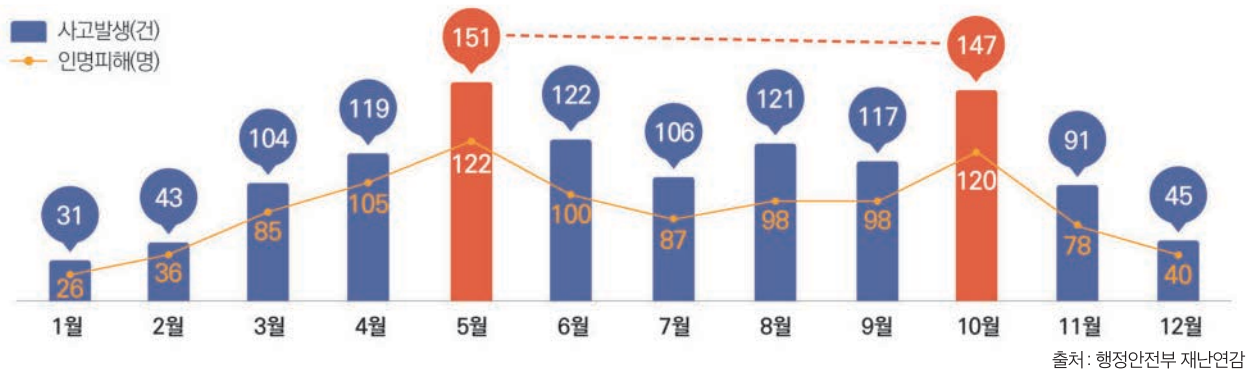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의 '2017~2021년 농기계 사고 현황'에 따르면, 매년 농기계 사고는 1,196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86명이 사망하고 909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7~2021년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와 비교해 보면,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4.5%로 전체교통사고 치사율(1.6%)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농기계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365,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농기계 사고 발생 현황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에 의하면, 3월은 전월 대비 농기계 사고 증가 폭이 가장 큰 시기이며 사고 발생은 씨앗 파종, 모내기, 수확 등을 실시하는 5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 농기계 사고 현황>



- 농기계 사고 유형은 2021년의 경우 끼임이 37.8%로 가장 많고, 전복·전도 22.9%, 교통사고 17.1%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농기계 손상 사고는 경운기가 가장 많았고, 예취기, 트랙터 순이었다.



경운기 35%



예취기 17.2%



트랙터 12.3%

출처: 농촌진흥청 '2021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경운기, 추돌 및 전도 사고 주의



- 야간 주행 시 후방에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트레일러에 등화장치를 설치하고, 야간 또는 악천후 운행 시 반드시 작동시킨다.
- 경운기 사용 전·후로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화장치에 이물질이 묻지 않았는지, 적재물에 의해 등화장치가 가려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경운기의 조향클러치는 저속 주행 또는 논밭에서 농작업 시 선회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주행 중에는 조향클러치가 아닌 핸들을 조작하여 선회한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조향클러치를 조작할 경우 평지와는 달리 조작한 쪽의 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예취기, 날카로운 칼날 사용 주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포함되는 예취기는 '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예취기 작업 시 날과 지면이 닿지 않도록 날의 각도는 5~10도, 높이는 10cm 내외로 유지하고 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취기 날은 좌측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작업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경사지에서는 경사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 작업 중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다수의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할 때는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예취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는 반드시 예취기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을 착용한 후 제거한다.

트랙터, 좁은 농로 주행 주의



- 좁은 농로, 경사진 길을 진입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꼭 속도를 낮춰 운행한다. 대체로 논밭은 보호 난간이 낮은 편이며, 풀이 무성하여 도로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트랙터 주행 시에는 미리 농로를 확인하고 논밭의 출입로를 정비해야 한다.
- 트랙터로 경사로 진입 시 꼭 10~15도 미만인 완만한 경사길을 택해 천천히 진입해야 한다. 무리한 경사길로 진입할 시 트랙터 전복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 요철이 심하거나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급출발·급선회·급정지는 자제해야 한다. 후진할 때는 뒤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등화장치를 작동시킨다.

농기계 안전 이용 수칙 10가지

1. 정기적 점검·정비와 사용 전 각부 상태 및 긴급정지장치 점검을 필수화하자.
2. 회전 부위 등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 방호커버, 안전장치를 장착하자.
3. 농업기계의 점검·수리 시 엔진을 반드시 정지하자.
4. 경사지, 좁은 농로, 방향 전환 시 감속을 생활화하자.
5. 야간 및 악천후를 대비하여 야간반사판, 등화장치는 항상 점검하자.
6. 주·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고정하자.
7. 도로에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자.
8.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하자.
9. 험령거리지 않게 작업복을 착용하고, 신체 끼임 사고에 주의하자.
10. 작업에 적절한 작업복, 작업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자.



‘농기계종합보험’ 안내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국가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지원	정부 50% + 지방자치단체 별도 0~37.5%(지역에 따라 상이)		
보험기간	1년	납입방법	일시납
상품형태	순수보장형(소멸성)	계약단위	1농기계당 1계약
가입대상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우더,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항공방제기(헬기, 드론)		
상품구성	보장종목(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 특약(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 국고지원 기본조건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대인배상, 대물배상 담보를 1년간 의무가입 * 단, 보험가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다발자의 할증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제한		
가입문의	지역 농·축협, 농협손보(1644-9000, www.nhfire.co.kr)		

따라 하기 쉬운 농업인 허리 운동 ①

농작업에 의한 재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중 디스크 이상 증상을 경험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반복적인 관절 사용과 표준화되지 않은 농작업 과정에서의 신체 부담, 부적절한 자세, 장시간 노동 및 중량물 취급 등이 농업인의 허리질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데, 평소 적절한 허리 운동을 꾸준히 시행한다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허리 맞춤형 운동을 소개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업장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

1.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엉덩이를 최대한 깊이 넣어 앉습니다.
2. 허리를 요추가 앞쪽으로 굽은 상태로 상체를 뒤로 젖힙니다.
3. 양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양측 견갑골은 서로 닿을 정도로 어깨를 뒤로 젖혀 가슴을 펴줍니다.
4. 머리를 뒤로 젖혀주면 목 디스크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한번 할 때 5~10초 정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동작

1. 발을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립니다.
2. 양손을 허리에 대고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허리를 뒤로 젖혀 줍니다.
3. 젖힌 자세에서 숨을 참고 5~10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 입으로 숨을 내뿔으며 서면 됩니다.

※ 주의 사항

- 운동 중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즉시 중단하고 안정 취하기
- 운동 시 손상된 부위의 통증이 심하면 그 운동은 하지 않기
- 과도하게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피하기

농업인 교육

2024년 농업인 교육을 안내합니다. 교육 신청은 과정별 교육 개시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주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100% 시군 추천 선발, 개인별 인터넷 신청 불가). 교육 신청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별 담당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05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8	29	30	1	2	3	4
				❶ 농작업기계 전기 용접(1기)		
5	6 대체휴일	7	8	9	10	11
			❷ 여성 귀농인 역량 강화	❸ 화훼 산업 육성		
12	13	14	15 부처님 오신날	16	17	18
				❹ 귀농·귀촌인 농업기계 입문		
19	20	21	22	23	24	25
		❺ 농식품 가공 창업				
		❻ 아열대 과수 산업 육성		❼ 타 시·도민 귀농·귀촌 준비 기초(1기)		
26	27	28	29	30	31	1
				❽ 발작물 자동화 농업기계		6월
2	3	4	5	6	7	8
		스마트 버섯 재배 기술				

● 스마트농업 전문기술교육 ● 귀농·귀촌교육 ● 정보화교육 ● 농업기계교육 ● 특화교육

1. 농작업기계 전기 용접(1기)

접수기간: 4월 2일 ~ 17일
교육기간: 5월 2일 ~ 3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선진지 교육장
교육내용: 농정사책 및 임대사업 발전방향, 트레일러 전기 용접 기초이론, 전기 용접 편철 접합 실습 및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교육, 장기보관요령 등
교육문의: 061-330-2732

2. 여성 귀농인 역량 강화

접수기간: 4월 8일 ~ 23일
교육기간: 5월 8일 ~ 10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전입한 5년 미만 여성 귀농·귀촌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선도농가
교육내용: 귀농·귀촌 지원 안내, 건강·여가활용·대인관계, 여성 귀농인 창업교육, 기존 농업인과의 융화 관리, 여성 귀농인 성공사례, 선도농가 현장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36

3. 화훼 산업 육성

접수기간: 4월 9일 ~ 24일
교육기간: 5월 9일 ~ 10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경관화훼 재배·환경 관리, 경관화훼 역할, 경관화훼 우수사례, 경관화훼 현장실습 등
교육문의: 061-330-2724

4. 귀농·귀촌인 농업기계 입문

접수기간: 4월 16일 ~ 5월 1일
교육기간: 5월 16일 ~ 17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주소를 둔 5년 미만 귀농·귀촌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선진지 교육장
교육내용: 안전한 농작업기계 운영 및 귀농·귀촌 향후 정책방향, 예취기·관리기 기초이론, 예취기·관리기 운전조작 현장실습, 농업기계 응급 점검·정비요령 등
교육문의: 061-330-2732

5. 농식품 가공 창업

접수기간: 4월 19일 ~ 5월 6일
교육기간: 5월 21일 ~ 23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가공 창업 절차와 운영 마인드, 농식품 가공 창업 관련 법규, 가공 트렌드 및 유통 마케팅 전략, 가공 지원사업 및 사업계획서 작성, 농식품 가공농가 사례발표 및 현장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23

6. 아열대 과수 산업 육성

접수기간: 4월 19일 ~ 5월 6일
교육기간: 5월 21일 ~ 23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기술, 재배포장 및 선도농가 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24

7. 타 시·도민 귀농·귀촌 준비 기초(1기)

접수기간: 2월 1일 ~ 5월 8일
교육기간: 5월 23일 ~ 24일 (교육시간 19시간)
교육대상: 타 시·도민 교육 희망자 25명
교육장소: 도내 선도농가
교육내용: 귀농·귀촌 지원 안내, 시군 홍보의 시간, 귀농·귀촌 멘토 성공 이야기, 선도농가 현장교육 및 체험(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도 신지식인 농가 현장 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36

8. 발작물 자동화 농업기계

접수기간: 4월 30일 ~ 5월 15일
교육기간: 5월 30일 ~ 31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선진지 교육장
교육내용: 농정사책 및 임대사업 정책방향, 발작물 농업기계 기초이론, 농작업기 점검·정비 등 시뮬레이터를 통한 안전한 영농작업 방법(로터리, 클러치, 변속, 동력전달장치 / 내연기관의 구조·기능·정비 / 양파·배추·고추수확기 부착 실습 / 작업 이식기 탈·부착 등 운전조작주행 실습) 등
교육문의: 061-330-2732



06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6	27	28	29	30 발작물 자동화 농업기계	31	1
2	3	4 ① 스마트 버섯 재배 기술	5	6 현충일	7	8
9	10	11	12 ② 귀농인 농촌생활 기술(2기)	13 ③ 여성 농업인 농업기계 활용(2기)	14	15
16	17	18	19 ④ 커피와 차 산업 활성화	20	21	22
23	24	25	26 ⑤ 귀농·귀촌인 전통주 제조	27	28	29
30	1 ⑥ 유기농업 재배관리 7월	2	3	4	5	6

● 스마트농업 전문기술교육 ● 귀농·귀촌교육 ● 정보화교육 ● 농업기계교육 ● 특화교육

1. 스마트 버섯 재배 기술

접수기간: 5월 3일 ~ 20일

교육기간: 6월 4일 ~ 5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버섯 산업현황 및 미래 전망, 버섯 재배기술, 버섯 가공·유통·마케팅, 버섯 재배농가 현장학습 등

교육문의: 061-330-2724

2. 귀농인 농촌생활 기술(2기)

접수기간: 5월 10일 ~ 28일

교육기간: 6월 12일 ~ 14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전입한 5년 미만 귀농·귀촌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현지 교육장

교육내용: 귀농·귀촌 지원 안내, 농사 실습, 텃밭 및 정원가꾸기, 집짓기와 자가수리 기능 생애 건축 기술, 목공·용접 등 생활 활용 기술, 우수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교육문의: 061-330-2736

3. 여성 농업인 농업기계 활용(2기)

접수기간: 5월 13일 ~ 29일

교육기간: 6월 13일 ~ 14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선진지 교육장

교육내용: 안전한 발작물 작물현황 및 향후 방향, 트랙터 시뮬레이터·콤바인·경운기 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기계 운전조작·긴급 점검 정비·현장교육, 응급처치 및 교통안전 등

교육문의: 061-330-2732

4. 커피와 차 산업 활성화

접수기간: 5월 17일 ~ 6월 4일

교육기간: 6월 19일 ~ 21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국내 차산업 현황과 전망, 커피 및 차 품종 소개, 동해예방 및 비배관리 등 재배기술, 커피 및 차 가공 기술, 커피 및 차 재배 선도농가 현장학습 등

교육문의: 061-330-2724

5. 귀농·귀촌인 전통주 제조

접수기간: 5월 24일 ~ 6월 11일

교육기간: 6월 26일 ~ 28일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전입한 5년 미만 귀농·귀촌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현지 교육장

교육내용: 전통주 사업 지원 안내, 술의 역사·전통주의 양주 원리, 술 제조 기구 및 역할 알아보기, 술 전처리 이론 및 실습, 발효제 누룩(곡자) 띄우기, 우수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교육문의: 061-330-2736

6. 유기농업 재배관리

접수기간: 5월 31일 ~ 6월 17일

교육기간: 7월 1일 ~ 2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선도농가

교육내용: 유기농업의 이해, 유기농 자재 제조 이론 및 실습, 유기농업 현장활용 기술 및 사례, 토양분석 및 미생물 활용, 유기농업 선도농가 현장 교육 등

교육문의: 061-330-2724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 주세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카카오톡 검색창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검색 후 채널 추가
- ✓ 또는 QR코드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채널 추가

독자의 소리

미래로 가는
**전남
농업**

독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uiz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상호 우위에 있는 특화품목 중심의 농업인
교육 교류과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업기술원은 어디일까요?
(6페이지 'JARES 뉴스' 참조)

- ① 경기도 ② 충청북도 ③ 경상북도 ④ 제주특별자치도

독자 엽서에 이번 호 퀴즈 정답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을
읽은 소감이나 알고 싶은 농업정보를 적어
5월 13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독자엽서를 보내신 분 중
30명을 선정해 '현미흑초', 또는 '유기농 유자차'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2월호 퀴즈 당첨자

구례군 '꿀따다농원' 스틱꿀 세트 / 15명

이*림(화순군 화순읍), 오*선(여수시 여서로), 민*호(순천시
용당삼산로), 이*채(나주시 그린로), 박*열(울산시 남구), 윤*
우(영암군 학산면), 김*사(나주시 그린로), 양*경(완도군 신지
면), 김*경(경기 용인시), 윤*순(서울시 서대문구), 정* (광주시
광산구), 이*훈(나주시 빚기람동), 노*옥(서울시 영등포구),
최*영(나주시 산포면), 설* (광주시 광산구)

영암군 '농업회사법인(주)순달' 순달 세트 / 15명

장*원(서울시 동대문구), 이*순(해남군 상산면), 잔*주(경남 창원
시), 조*희(강릉군 안양면), 박*우(충남 천안시), 최*선(목포시 텃
골로), 노*영(나주시 빚기람로), 김*선(나주시 남평읍), 손*란(광
주시 서구), 정*신(경기도 남양주시), 주*택(여수시 돌산읍), 김*
희(강진군 칠량면), 배*별(서울시 강서구), 이*수(광주시 남구),
최* (완도군 완도읍)

독자선물

※사진은 예시로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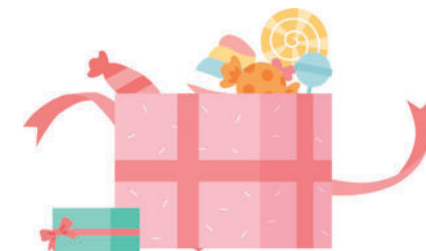
15명

보성군
'비니거파크 초루'
현미흑초



15명

완도군
'섬바다식품'
유기농 유자차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0-07



자원경영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우)58213 TEL. 061. 330. 2597

